

상황화가 복음의 타협으로 변질될 때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

기독교 청소년 집회에서 나는 잠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찬양 시간이 끝나갈 무렵, 예배 인도자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주님과 같이(There Is None like You)”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잠시 후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집회장을 가득 채운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고 싶어 하신다고 선언했다. 예배의 대상이 갑자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로 바뀌어버렸다.

나는 순간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참석자들 중 상당수가 울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배 인도자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의 접근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솔직함과 배려함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들의 감정 조종에 집중했다. 만약에 그날 저녁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예배 인도자의 찬양 인도방식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진리가 타협되었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 순간에 옳다고 느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나는 좋은 찬양을 감사하는 설교자이다. 평생 재능 있는 연사, 보컬리스트, 음악가, 음향 엔지니어가 참여한 예배에 참석했다. (이런 인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나는 부드러운 혀, 기억에 남는 베이스 리프, 적절한 분위기가 집회장 전체를 장악했던 몇몇 사례를 목격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기쁨, 슬픔, 두려움, 괴로움, 희망 같은 특정한 감정을 느끼라고 하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감정이 풍부하게 담긴 태피스트리이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에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 적절하게 표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자아와

치료 문화의 부상으로 인해서 단지 인간 경험의 일부였던 감정이 이제는 아예 삶을 주도하는 핵심 권위가 되었다. 이는 오늘날 복음전도를 어렵게 만들며, 특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시대와 연결하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관련하여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상황화와 감정

특정 문화에 맞게 복음을 이해하기 쉽고 관련성 있게 조정하는 게 상황화이다. 상황화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독특한 문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됨”(고전 9:22)이라는 말씀에 맞게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화에는 성경 진리의 신실성보다 문화적 관련성이나 감정적 호소력을 우선시하려는 유혹이 따라온다.



살 날이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는 주간 남성 소그룹에서 다음 질문을 던졌다. “살 날이 딱 일주일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왔고, 우리는 그럼 왜 그 일을 당장 이번 주나 이번 달 또는 다음 가족 모임에서 하지 않는지를 서로 물었다. 그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 말은 병적으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자는 게 아니다. 단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날이 정해져 있음을 제대로 응시하자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아내의 묘비를 보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태어나고 죽을 날짜가 들어갈 자리도 있는데, 지금은 태어난 날짜는 있지만 죽을 날짜는 비어 있다. 언젠가 거기에 날짜가 적힐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털어놓는 것도 아니다. 죽음에 대

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최소한만 생각하는 경우에, 당신은 지금 죽음을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생 너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다면, 당신은 또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시 90:12).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점에 불과하다. 시작하면서 바로 끝난다. 정말로 짧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2면
푸른초장
김동진 목사



4면
선교한국
손상웅 목사

7면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엔 교회배너 | 한글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책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

주제강의: 목회와 설교, 목회와 영성, 목회와 가정, 목회와 소그룹

강사: 김영길 목사 (LA 감리회인교회 원로목사), 임성진 목사 (WMU 총장), 남종성 교수 (아시아 아메리칸 영성센터 디렉터), 최윤정 교수 (PCCE 디렉터), 신선목 교수 (소그룹 사역센터 디렉터)

일시: 2025년 3월 10일(월) 9:30AM-3:30PM

장소: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시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주관: World Mission University | 전화: (213) 388-1000 | 이메일: ministry@wmu.edu

시 론

미래목회의 요구들 앞에선 교회



이동진 목사
(성화장교회)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가장 빠르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의 정책발표는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이른바 대형교단의 새해 정책 발표는, 당장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할지 가능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준다.

미국 남침례회 ‘윤리 및 종교자유 위원회(ERLC)’는 올해 공공정책 의제로 생명, 종교의 자유와 결혼과 가족, 인간존엄성 등 4개 분야를 초점으로 한 42개 항목의 의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의제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방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장 이번 남침례회 ERLC의 몇 가지 의제들은 당장 효과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임신중절 옹호규정 등 낙태문제라든가 종교의 자유회복법 등에 대한 신속한 철회를 진행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인 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동성애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번 ERLC가 발표한 관련 의제들은 교회가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증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법안들이 활성화 되도록 밀반침이 되어주고 있다.

이번 의제들 중에는 ‘성전환 수술 및 시술을 금지하는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인간 존엄성 분야의 연구책임자인 라산 프로스트 박사는 성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인간 존엄성을 중시해야 하며, 우리의 정책이 그 존엄성을 반영하는 한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신앙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는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그러한 일들이 행정적 지원 아래 당연한 듯이 바뀌어왔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권 보호라는 이상해진 우선 아래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행정부는 몇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교회는 당연히 환영하고 지지해야 할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세상과 타협할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바른 성경관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마땅히 적극 지지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제 정치성향을 떠나서 확실한 복음의 색깔을 내건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교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에 교회도 더욱 전문성이 필요해졌다. 담임목사의 목회에 다양한 전문인들의 협력사역이 요구된다. 음악목사라는 이름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지만 사실 미술목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체육목사도 문학목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특별히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성도들의 정신건강도 교회가 돕고 감당해야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 목회상담학을 신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배우지만 모든 목사가 상담을 잘 할 수는 없다. MFT(Marriage & Family Therapist)라는 전문직이 있다. CPA나 MBA처럼 ‘정신건강 상담치료’에 대한 공인자격증인데 이러한 공인된 전문가격을 갖춘 목사가님에 교회에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마음 아프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성경 얘기나 기도만으로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꼭 목사여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전문인 목사가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미래 목회에 던져지는 다양한 요구에 대해 교회는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djlee7777@gmail.com

내가 설교에서 저지른 열 가지 실수

실수로부터 배우고 발전하라!

지금 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참된 설교라고 했던 로이드 존스의 말은 유명하다. 설교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필요라면, 그건 세상에 게도 똑같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필요라는 의미이다. 참된 성경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마크 데버가 말했듯 신실한 설교자는 “구절의 주요 요점을 설교의 주요 요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참된 설교는 힘든 일이며 설교자는 설교 기술 측면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발전하는 설교라는 말 속에는 실수의 교정도 포함된다.

설교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본문을 충실하게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설교자라면 설교에서 저지른 실수와 관련해서 다들 나름의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수와 더불어 그로 인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의 실수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그래서 나는 설교자로서 내가 저지른 열 가지 실수를 공유하려고 한다. 내 실수에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1. 적용이 없는 지식 설교

설교에 대해서 내가 들은 가장 유용한 조언의 하나는 “무엇”과 “아니, 그래서 어째라고?”라는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 중심의 설교는 성경의 진리(무엇)를 진술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 진리의 적용까지(아니, 그래서 어째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성경적, 신학적 진리의 “자료 더미”로 전락하고 있다. 성경 저자들조차도 “그러므로”라는 부사를 사용했다. 기독교 교리는 “그러므로”에 근거해 적용되어야 한다. 삶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성경의 진리가 선포될 때, “아니, 그래서 뭘 어째라고?” 하는 질문이 교인들로부터 나오는 안 된다.

2. 나의 세계관(선입관)을 전달하는 설교

내가 끊임없이 저지른 또 다른 실수는 나의 특정 프레임워크를 염두에 두고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다. 프레임워크는 설교자에게 관심 있는 신학 체계



또는 특정 주제를 의미한다. 나는 일 년 간 온통 교회론에 미쳤던 적이 있다. 모든 말씀을 오로지 교회론의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내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교인이 말했다. “목사님의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 교회론에 관한 것뿐입니다.” 프레임워크 자체가 반드시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레임워크로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주입한다.

3. 상상의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설교자는 누구나 롤 모델이 있고 그로부터 배운다. 게다가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의 설교자로부터 설교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한 불행한 결과가 있다. 당신이 본받고 싶어 하는 설교의 영웅이 다루는 모든 설교 주제를 당신 교회의 상황과 관계없이 다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다. 그 결과 당신은 앞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게 된다.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사는 교인들에게는 관련이 있지만 우사킬레, 키트웨에서 사는 교인들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문제를 웅변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당신은 분명히 설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당신의 상상 속에나 있지 현재 교회에 앉아 있는 교인들이 아니다.

4. 전체 교인을 다 고려하지 않는 설교

어느 주일 저녁, 한 여자 교인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과 남편에게 큰 도움을 준 설교였다고 고마워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움을 주는 피드백이었다. 교인들은 다

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인들마다 삶의 계절과 단계도 다르다. 따라서 교인들 모두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설교에서 소외되는 교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설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다(고전 15:1-4).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셨다(눅 24:44-48). 그러므로 충실한 설교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까지 모든 사실을 다 연결해야 한다.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설교는 결국 도덕적 설교로 끝날 뿐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 말한다. 이런 설교는 분노만 일으킬 뿐 소망이 없다. 좌절한 교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설교자는 좌절하고 분노한다. 소망이 없는 이유는 설교자가 더 열심히, 더 큰 소리로 설교하면 그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설교는 마치 의사가 처방전 없이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다. 도덕적 설교는 율법적 공동체를 만들 뿐이다.

6. 맥락을 놓친 설교

성경 공부와 말씀 이해에 있어서 마치 진리처럼 간주 되는 게 ‘문맥이 전부다’라는 말이다. 모든 구절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구절에는 나름의 당시 상황이 있다. 또한, 문학적 맥락뿐 아니라 전후 구절이 있다. 또한, 성경 전체의 맥락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교자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맥락을 알아야 한다. 맥락을 모르는 설교자는 말씀을 왜곡 또는 틀리게 취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9:11은 건강과 부를 설교하기에 좋은 구절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맥락을 보면 청중은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 후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교회인쇄물 • 현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휴스턴 한인장로교회는 고 김성만 목사님이 1977년도에 휴스턴 지역(Texas)에 개척한 교회로, PCA 한인남부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현재 48년째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6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PCA 교단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으신 분
2. PCA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대학이나 일반 대학교(B.A) 졸업 이후에 신학대학원(M.Div) 이상을 공부하신 분
3.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영주권자나 시민권자)
4. 목사 안수 후 Full Time으로 미국에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담임 목사 또는 부 목사)
5.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
6.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만 45세--55세 까지 해당되시는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2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가족 사진 첨부) 2부
3. 목사 안수 증명서 2부
4. 대학(B.A) 졸업증명서 2부, 신학교(M.Div) 졸업 증명서 2부
5. 목회자 2분으로부터 추천서 2부(추천서는 직접 이메일(lee1954us@yahoo.com)로 보내 주실 것)
6. 최근 6개월 내에 설교하신 동영상 2회분(USB로 제출)
7. 나의 신앙 고백서 2부
8. 나의 목회 철학과 이민 목회 계획서 2부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프린트하여 Priority mail로 준비하여 교회로 보내 주시고 설교 동영상만 USB로 담아서 함께 제출하실 것
2. 모든 서류는 오직 목사 청빙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청빙결과에 개별 통지해 드리며(전화 번호 텍스트로), 전화로 문의하시는 일은 사절합니다.
4. 서류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제출처는 <휴스턴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귀하,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9002 Ruland Rd. Houston, TX, 77055> 입니다.
5. 청빙위원회로부터 선발이 되시면 개별 연락하여 5월과 6월 중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7월 13일 주일 안에 공동의회에서 결정할 것임.
6. 제6대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시면 7월 중순 경부터 8월 사이에 휴스턴으로 이사오시면 될 것입니다.

PCA 한인남부노회 휴스턴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www.kpchouston.com 9002 Ruland Rd, Houston, TX, 77055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동남아시아	\$100 \$130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240 \$24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영어:	목 사 ☐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Flushing, NY 11355
Tel	(323)665-0009, (213)674-7982	Tel	(718)886-4400
E-mail	lachpress@gmail.com	E-mail	nychpress@gmail.com

상황화가 복음의 ...

〈1면에서 계속〉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독교의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을 최대한 축소함으로,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또 감정적으로도 매력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압력에 직면한다. 오늘날 문화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순간 좋은 평판을 한 순간에 날아가도록 만드는 특정한 몇몇 죄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적 필요를 해결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믿음, 회개, 그리고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는 복음 메시지의 희석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실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상황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거룩한 감정으로 바꾸라

나의 영웅 중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The Religious affections)에서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감정(holy affections)”이라는 개념

을 도입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적절하게 일치한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그의 교체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의 통찰력은 상황화와 타협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감정을 진리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기독교 생활의 필수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만 그렇다는 사실이다. 해결책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우리의 관계, 가치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의 감정이 말씀에 의해서 형성될 때, 그것은 거룩한 감정으로 승화한다. 은혜로 정화된 상태의 이 감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다. 거룩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어리석지 않다. 문화라는 명목으로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유행하는 현존의 가짜 정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에 진리를 존중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참된 성경적 정의를 추구하는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다.

따라서 진짜 도전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형

성하는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결코 복음이 담고 있는 감정적 효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삶의 약속 앞에서 누구나 영혼이 흔들리는 감격을 느낀다. 확신에 찬 영혼은 기쁨과 함께 슬픔을 모두 다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 오늘날 문화적 바람이나 나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감정이 팩트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는 세상이다. 교회는 문화적 맥락을 유지한 채 이웃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실해야 한다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했다. 감정이 진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금세 길을 잃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감정(affections)이 오로지 말씀의 진리에 근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상황화라는 복잡성을 더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by Paul Bang, TGC

목회단상

복음을 가로막는 말들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새해가 되어 집사님 가정과 만나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덕담을 나누던 중 여 집사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한 얼굴로 한숨을 몰아 쉬며, “목사님, 가슴이 아파 먹는 것도 잘 안 넘어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목이 메인 이유는 전년 12월 29일 고국에서 일어난 무안참사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몸은 미국에 살아도 항상 고국의 소식과 안병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집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목사님, 181명이 비행기를 탔는데, 2명만 살고 179명이 모두 죽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가족이나 지인들은 날벼락일 거예요. 아무 상관 없는 나도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까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인재이고 참사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엄청난 사건·사고를 바라보는 눈은 납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식사 중 눈물을 보이고,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빠른 회복과 치유를 기도하는 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신앙인의 관점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과 그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하여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무안참사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사 한달을 맞은 날, 제가 사는 지역에 비행기가 충돌하여 탑승객 67명 전원 사망하는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인도 두 명이 타고 있었다며 한인 사회에 안타까움을 전해왔습니다.

이럴 때 종종 등장하는 메뉴가 ‘왜 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하는 화두입니다. 이런 질문은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면 내용과 시스템을 질타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유독 신앙이 깊고 남다르게 산다고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 고국에서 일어난 무안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 그것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신부신 모두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한 영혼이라도 멸망과 사망 가운데 두시길 원치 않으시는 분임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그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믿을 좋다고 하는 분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흑백논리’나 ‘선악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거나 사명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바라기는 그것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도 못한 사고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두 번 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신 모습은 달랐습니다. 망루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눅 13). 오히려 그런 상황은 그들의 죄를 몰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지중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픔을 공감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방법을 찾아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Word4u@gmail.com

완벽한 설교 욕심이...

〈2면에서 계속〉

7. 설교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정기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을 때, 나는 설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에 빠져 있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 사이에 즉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설교해도 즉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교인들이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답답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아이가 축축 크기를 자라는 부모와 똑같다. 성경은 우리가 처음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젖을 먹어야 한다고 알려준다(벧전 2:2).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신자는 고기를 씹도록 성숙해야 한다(히 5:11-14).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일어나는 결과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한다. 그리고 길게 보고 설교해야 한다.

8. 나를 설교의 영웅으로 만들려는 시도

설교자는 거룩의 가면이라는 유혹에 직면한다. 단지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설교자가 설교 내용대로 살 거라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가정이다. 임으로 진리를 전파하나 삶은 진리와 얼마든지 동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자신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건 설교자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교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렇다고 그들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기준이다. 자기 설교에 자기가 영웅이 되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나 아버지인지 자랑하기는 쉽다. 전도나 기도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겸손함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설교자는 교인들을 오로지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해야 한다.

9. 본문의 강조점을 무시하는 경우

설교 준비의 원칙 중 하나는 모든 구절이 강조점을 드러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강조점이 설교의 형태를 구성해야 한다. 설교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본문의 구조를 무시하여 저자의 강조점을 놓치는 것이다. 그 결과 얼마든지 잘못된 본문에서 올바른 내용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 저자의 주장과 본문의 강조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구조와 강조점을 무시하는 설교는 종종 각 구절에 대한 주석 읊조림 또는 단지 해당 본문을 토대로 하는 조직 신학 강의로 끝난다.

10. 빈약한 논증과 묘사

어느 주일 점심 식사 때 사랑하는 아내가 물었다.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날 설교를 매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설교를 그렇게 했어 야지요.” 내가 정기 설교자로 일한 지 2년차에 한 젊은 여자 교인이 내 설교를 적은 설교 노트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함이 없어요. 설교할 때 정확하게 직함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말했다. 작년에 아내 는 내게 설교 서론만큼이라도 한 자도 빠짐없이 미리 원고를 써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모든 대화는 내가 설교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능숙하게 또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실수에서 배우고 발전하라

설교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 건설적인 피드백, 신실하겠다는 열망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배우려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 바울의 훈계가 모든 설교자에게 참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딤후 4:15).

by Chopo Mwanza, TGC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8:3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찰스 스펔전 목사도 우울증 중증 환자였다

황금의 입,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스펔전 목사는 3대째 목사였다. 설교의 탁월한 DNA를 타고 난 것 같다. 2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청교도들의 경건 서적들을 읽으며 자랐다. 그는 특히 천로역정을 즐겨 읽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한 자료가 되었다고 한다. 12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17살 때 목사 임직을 했고, 요즘 세상에서는 불가하겠지만... 작은 시골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 해에 400명 교인이 늘어났다고 한다. 20세에는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는데... 3년 후에는 2만 3천 명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한다. 27살에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배당이 6천 석이었지만 빈 공간 없이 가득 차서 1만 명씩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평생에 3,500편의 설교를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중복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던 유능한 설교자였다고 한다. 그는 침례교회 목사이긴 했지만 칼빈주의와 청교도 신학적인 뿌리를 깊이 내린 설교자였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교리들을 생동감 있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

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설교자였다. 이런 스펔전 목사를 혹자는 ‘사도시대 이후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설교자가 주기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영국의 흐린 날씨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도 보통 증상이 아닌 중증 환자였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달은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에 가서 요양을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편지를 보면...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같이 되었다.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지낸다.’ 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우울증이 있었을까?

스펙전은 자신의 우울증의 배경과 원인들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했고, 후대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참고하면 우울증을 가져온 직접 간접의 배경들은 이렇다. 신학적 입장이 다른 목사들의 비서경적인 요소들을 지적함으로 심한 공격과 비판과 심지어 징계를 받기도 했

다고 한다. 그는 한 주간에 무려 7번에서 10번의 설교를 감당했고... 그의 아내는 건강이 약해서 무려 27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도 건강이 전체적으로 약해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 결정적인 우울증의 원인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1만 2천 명의 성도들에게 서레이 가든 음악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 장난삼아 ‘불이야’를 외치는 바람에 패닉 상태에 빠진 회중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7명이 죽었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으로 스펔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스펔전은 그 엄청난 우울증과 불안과 낙심을 이기고 200권의 저서와 수천 번의 설교를 했다. 어떻게 이겼는지?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진 후배들이 그의 치유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첫째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구 했다고 한다. 둘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폭을 바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고 한다. 셋째는 자연 속에서 육체의 휴식을 철저히 가정으로..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를 힘썼는데 이를 통해서 위로 받기도 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조인을 하면서 셀프 힐링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최고의 치료제’라는 주제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모든 상처의 치유제이다. 하나님을 명상하는 것이 모든 슬픔에서 회복시켜준다. 성령의 감화력이 고통의 진통제이다. 슬픔과 염려를 잊고 싶은가?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맞볼 것이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김동진 목사

(KAPC 개혁장로회신학대학원 학감)



지난 1월 7일 화요일 저녁, Zoom을 통하여 겨울 특강을 진행하는 도중에 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심한 바람으로 인하여 전등이 몇 번씩이나 꺾어버리는 가운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겨우 강의를 마치고 메시지를 열어보니 긴급한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뉴스를 틀어보니 LA 근교의 인구 밀집 지역 세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강풍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주택가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불과 2-3마일 떨어진 알타데나 지역의 주택들은 평소에도 눈에 선할 정도로 낮은 지역이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 들어가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북가주에 거주하는 큰아들도 전화를 걸어와서 긴급 상황을 대비하라고 다급히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정전이 되면서 상황 파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온 동네가 하얀 재로 뒤덮여있었고 하늘은 검고 누런 연기로 인하여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난이 하룻밤 사이에 발생했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홍수가 임하여 멸망당했다고 경고합니다(38-39절).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홍수 심판이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최후의 심판 역시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남자들은 들에 나가 밭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땀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곧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는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2절). 종말에 관한 대표적인 교훈인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 25:13)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쓰이고 있

습니다. 첫번째 의미는 주님께 서 다시 오실 때, 곧 온 우주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죽

한 3단계를 보아도, (1) 필수 준비 요소, (2) 회개 사항, (3) 나의 자취 등으로 분류해서 준비할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과연 이러한 단계로 준비해나가면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된 것일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36-42



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나 공통점은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교훈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2-30년 전부터 소위 “죽음학”(thanatology)이라는 분야가 도입되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하는 “Well Being”이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안락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Well Dy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고통 없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Well Dying”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간단

요? 그러나 “Well Dying”에 대한 준비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통치 기간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중국을 의미하는 China의 시조인 진시황제 역시 엄청난 규모의 능을 만들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과연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대비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고 있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눅 23:42)라고 간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

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 26:38)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0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번째 오셔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1절)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 당시 잠이 들 만큼 몸이 고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별로 이동하지 않고 며칠을 지냈기 때문에 몸은 졸음이 올 정도로 피곤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싫었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3)라는 질문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라는 정답을 제시하여 예수님의 축복과 함께 교회의 약속과 천국 열쇠의 권세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 이에 대하여 베드

로는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 여기에서 “항변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rebuke,” 곧 “꾸짖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을” 때와 (마 17:18),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을” 때에 (마 8:26)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온 3년 기간 중 최초의 항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역으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16:23)라고 꾸짖으면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관점은 이처럼 극렬하게 돌로 나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고백을 하고 교회의 약속과 천국 열쇠까지 받았지만, 십자가에 대하여 여전히 어둠이 있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제 곧 이방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으실 “영광의 왕”으로만 생각했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고난의 왕”이라는 사실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도 소위 “복음주의”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여 누구를 찍으라는 구호와 주장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잠들어 있었고 심지어는 극렬하게 반대했던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눈떠야 할 대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고전 1:8, 22-24). 오늘도 “십자가”에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djkim3333@gmail.com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는 1903년 1월, 7,226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0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최초의 한인 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120년이 흐른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는 약 4,000여 개의 한인 이민교회가 존재하며, 이는 한 나라의 이민자들에 의해 100년 만에 이뤄진 유례없는 역사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교회중심의 삶과 교육

한인 이민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선조들의 헌신적인 기독교 신앙 덕분이다. 그들은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휴가 시즌에도 교회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예배와 부흥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비전이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

성을 가르칠 영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정과 신앙의 개방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친척과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집을 오가며 교제했으나, 현재는 가족조차 호텔을 예약하여 따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교회중심의 생활을 약화시켜 버렸다. 신앙생활은 불편을 넘어서는 것인데, 불편을 견디지 못해하는 현실속에 신앙조차 점차 퇴색해 가는 것을 본다.

사회의 기독교 가치 변화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로 시작되었으나, 1962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되었다. 1963년에는 성경이 학문 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와 밀접한 관련이

교회중심의 자녀교육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기독교 신앙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대안이고, 교회화 회복이다. 이것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만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교회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결코 방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교회를 향해 나아오는 신앙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교회로 이끌어야 함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한다. 월삭 기도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부터 시

록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부터 직접 헌금을 준비하게 하고, 헌금을 드릴 때 두 손으로 정성껏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실물교육, 헌금

헌금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가 아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며, 아이들에게 신앙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치는 실물 교육이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하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들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가르치는 과정에 헌금생활이 있다. 십일조도 마찬가지이다. 십일조를 드리는 가정과 드리지 않는 가정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 십일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중심의 자녀교육

-교회앞으로, 교회로 가까이, 교회의 말에 순복-

은 초대교회의 신앙과도 닮아 있었고, 이것이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

교회중심의 삶은 자연스레 자녀교육도 교회중심이 되어, 한인 이민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학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조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시절,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독립군 자금을 지원하며 조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 엘리트들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민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세웠다.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때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세속적인 문화 콘텐츠와 반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졌다. 교회교육이 아이들의 관심을 잃어 가면서, 가장 뚜렷한 증상으로 자녀들의 교회 출석 빈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LA 지역의 교회를 조사한 결과, 수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는 10% 미만이며, 매년 약 10%씩 참석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전체 13세 아이들의 75%가 예배의 의미조차 모른다고 한다. 이는 사단이 다음 세대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처럼, 부모 세대는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

있다. 뉴욕 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대법원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며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께 더 이상 호소할 수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탄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는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앙교육을 학교의 필수 교육 과정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케네디 이후로 매일 아침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전통이 사라지면서, 미국 사회는 점점 기독교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 교육분야에서 신앙의 영적회복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의 정책과 행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이 나라가 다시한번 더 영적 부흥을 맞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편 33편 12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다.

정교 분리 원칙은 원래 기독교를 부당한 정치적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학교 내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철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신앙 교육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인 이민교회는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금 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작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부모가 자신을 위해 축복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고, 자녀들은 부모의 영권아래 그 말들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십대가 되어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다. 신앙교육을 통한다면, 줄을 놓쳐 버린 것처럼 신앙에서 멀어지고 방황하게 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교회와 함께 신앙의 추억

부모는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 40일 새벽기도회 같은 특별한 행사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신앙적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 잠이 부족하다면 일찍 자고, 추우면 내복을 껴입고, 교회가 멀다면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신앙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의 주일 생활 확인

부모는 자녀가 주일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주일 저녁이면, 교회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물어보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설교를 적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헌금을 생활화하도

을 열어주시는지 간증하는 사례가 많다.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배우게 된다.

예배의 태도가 중요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게 나타나는 청년들이 많다. 학교 수업에는 지각하지 않으면서, 예배에는 늦는다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 도중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예배 중 하품을 하거나 딴생각을 하는 것은 태도 문제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며,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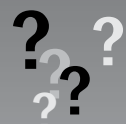
신앙교육이 모든 미래를 결정

성경을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달려 있었다. 예배가 살아 있는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정과 나라는 결국 쇠퇴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졌다. 신앙교육은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오늘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교회는 교육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 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늘 저녁 늦게 TV를 보며 밤 12시나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늘 늦게 일어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묵상하라고 청년부 지도 목사님을 통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아침 시간의 성경 읽기와 묵상의 중요성을 알고 싶습니다.
-브레아에서 Choi

아침 성경 읽기와 묵상

A: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하루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바쁘면 오후나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승리하면 하루 전체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조율하는 일부러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인생은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성경통달의 깊이와 속도로 비례합니다.

옛날 수도사들의 실례를 들어보면 그들은 영적 훈련을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오로지 성경읽기(렉티오)와 성경묵상(메디타티오), 대화기도(오라티오)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묵상하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영성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조금하고 알파한 묵상은 우리의 영성을 가뭄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기록된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꼭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어떤 특정한 사상이 우리 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책이나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 마음 밭에 이런 것들이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내 마음에 불을 지르고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한 구절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결국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느냐에 좌우합니다. 2)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한다. 갈증 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염려와 초조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3) 말씀 묵상은 바른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주고 어두운 길을 갈 때에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묵상은 바른 가치관으로 형성케하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옳지 못한 길에서 멈추고 바른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합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너무 빠르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빠른 것은 우리를 조금하고 바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시원한 물가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그러기 위해 잠자는 것도 한 시간 일찍 주무십시오.

육을 감당해야 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은 장작을 쌓는 것과 같다. 당장은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강력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그저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었다. 그러나 3년 동안 쌓인 말씀이 성령의 불과 함께 폭발하면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부모는 자녀가 말씀들을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해야 한다.

때로는 엄격하게라도 가르쳐야 한다. 세상을 경험하기전에, 먼저 성경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세상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자녀들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들은 말씀이 그들 속에 있다면,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할 가능성이이라도 있지 않을까? 자녀들에 대해 최소한의 이 믿음조차 없다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너무 무책임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두려움은 나의 미래가 아니다

미국의 수도와 붙어있는 이곳 노던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지역은 크고 작은 공항과 공군기지가 곳곳에 많이 있다. 이곳 거주자들은 국제선 승객은 주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국내선 승객들은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을 이용한다. 우리 가족도 한국방문에는 국적이기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을 미국

내 여행은 자주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을 이용했다. 새해부터 한국에서 들려 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슬픔과 사고의 아픔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집에서 20여 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또 다른 항공사고는 큰 충격이었다. 그날 포토맥 강에 추락한 비행기와 헬리콥터 사고의 참혹함은 그 밤 오랜 시간 강하

게 울리는 분주한 사이렌소리로 온 몸으로 느껴졌다. 2025년 새해가 되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설날(Lunar New Years Day)도 지났지만 우리의 새해는 설렘과 희망보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다. 뉴스로 전해지는 모든 소식들도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기대보다 걱정 근심에 더하는 소식뿐이다. 신년, 설

직, 급격한 물가상승, 안전등과 같이 일상에서 전혀 염려대상이 아니었던 삶에 당연한 것들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합법적인 신분과 아늑한 집,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고, 아무 문제없어 라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안심을 하는 이민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22년 발매된 <Fear is not my future>라는 곡은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도 되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는 인기 있는 가스펠 워십송이다. 작사가 브렌든 레이크가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에서 큰 영감을 얻어 작사한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소

망과 희망을 주는 찬양이다. 요즈음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Emanue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을 기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 9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우월주의자 청년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이 교회는 1816년 당시 흑인 노예들에 의해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노예해방과 평등, 시민권과 관련된 행사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교회였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 중에도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절망과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몇몇 유가족들은 재판장에서 범인을 향해 당신을 용서한다고 외쳤다. 장례식에 함께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가족이 범인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공식적인 내용의 소식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아들 학교 카운티에서 ICE의 학교 방문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처하고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계속 보낸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드라마 때문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페어팩스카운티이다. 우리교회가 소속된 VAUMC는 감독이 ICE 교회 방문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매뉴얼을 만들어 그 누구도 위협이나 인간의 존엄을 해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 각 교회로 보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소식들은 우리를 점점 더 불안과 공포, 절망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뽑았다고 정책도 모두 지지? No!’ ... 美 복음주의자들의 기준은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정부의 정책과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적 가치관, 직접적 경험에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33%)보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61%)를 더 많이 지지했다고 밝혀 보수적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향한 맹목적 지지로 이어지는 않았다. 그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펼치고 있는 ‘무관용 정책’이다. 불법이민 문제 쟁점화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미국 내 이민자 중 추방의 우선순위에 뒤야 할 사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67%)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63%)을 먼저 꼽았다.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30%)이나 미국 시민과 결혼한 사람(14%) 등을 추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비율은 낮았다.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응답의 바탕은 성경적 세계관과 직접적 경험에 있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성경(2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일상에서 관찰한 이민자들의 삶(16%) 언론(14%) 이민자와의 직접적 교류(11%) 가족 및 친구(10%) 등이 뒤따랐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총괄디렉터는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은 상식적이고 자비로운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경의 원칙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기에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충격과 공포의 트럼프노믹스... “美 경제 냉각 우려”

트럼프노믹스의 ‘충격과 공포’가 미국 경제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의 실질적인 효과도 내년까지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위험에 먼저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린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2.0’의 빠르고 격렬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며 “그들 중 일부는 내년까지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

워 단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위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고율 관세로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춰 내수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정책이 성장 둔화 위험에 우선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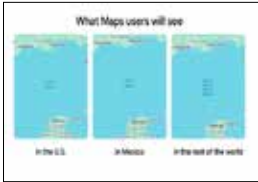
나단 시츠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어조가 예상보다 강경하고 격렬하다”며 “내년에 더 부양적인 조치로 균형을 맞추는 시나리오가 있어도 당장 올하는 정강이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미룬다면 미국 경제가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모리스 움스펠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3일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정책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반기업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카스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려되는 건 관세만이 아니다”며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올해 미국 성장률을 0.5% 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연방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줄이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에너지·암호화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맵도 ‘멕시코만→미국만’ 이름 변경... 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멕시코만(the Gulf of Mexico)’이라고 불렀던 미국 남부와 멕시코 사이의 해역이 미국 구글 지도에서 ‘미국만(the Gulf of America)’으로 등록됐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국만을 보게 될 것이고, 멕시코 사용자들은 멕시코만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 사용자들은 두 이름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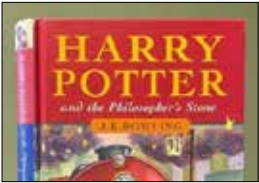
구글 맵은 세계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지도 서비스로 추정된다. 구글 맵은 공식 정부 기구에서 지명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를 적용해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알래스카주의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산을 매킨리산으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알래스카의 원주민을 기리기 위해 알래스카의 랜드마크인 매킨리산의 이름을 데날리산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산 이름을 바꾼 것은 ‘매킨리 대통령의 삶, 업적, 그리고 그의 희생에 대한 모

욕’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매킨리산으로 이름을 되돌리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데날리산을 매킨리산으로 바꾸는 것도 지도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롬 더미서 나온 ‘해리포터’ 초판본 3800만원에 낙찰

페롬 더미에서 발견된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의 1편 초판본이 경매에서 3800만원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BBC는 9일(현지시간) “해리포터 1편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 하드커버 초판본(사진)이 전날 영국 페인턴 NLB옥션스 경매장에서 2만1000파운드(약 3800만원) 이상의 낙찰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작가 J K 롤링이 1997년 펴낸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 초판본에서 하드커버는 단 500권만 발행됐다. 미국에서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제목으로 출간됐다. 이번 경매에 나온 책은 도서관에 배포된 300부 중 한 권으로, 최근 영국 브리삼에서 사망한 남성 유품의 페롬 더미 속에서 발견됐다.

NLB옥션스 운영자인 대니얼 피어스는 BBC에 “책 뒷면에 인쇄된 ‘철학자(philosopher)’라는 단어에서 철자 하나가 잘못 적힌 것이 초판본의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초판본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매는 현장 입찰과 더불어 전화 및 온라인 참여 방식이 병행됐다. 피어스는 “책이 해외 입찰자에게 팔렸다. 그는 하드커버 초판본으로는 매우 좋은 낙찰가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희귀본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환호·야유 동시에 터진 ‘트럼프 슈퍼볼 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현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미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을 경기장에서 관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볼을 찾아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제59회 슈퍼볼을 지켜봤다. 그는 경기 시작을 앞두고 지난달 1일 프렌치크위터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피해자와 구급대원을 만나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때 경기장 관중석에서 환호와 야유가 함께 쏟아졌다. 하지만 경기장 대형 화면에는 필라델피아 선수들만이 등장해 당시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후 국가가 연주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 경례하는 모습이 장내 대형 화면에 상영됐고, 관중석에서 큰 환호성이 터졌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NFL 최대의 볼거리인 슈퍼볼을 ‘트럼프 쇼’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VIP석에서 장녀 이방카, 차남 에릭 등 일가족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 측근들도 동석했다. 경기 도중 캔자스 시티 쿼터백 패트릭 머휴스의 가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앞두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캔자스

시티가 승리할 것”이라며 “머휴스는 승리하는 법을 아는 선수다. 그는 대단한 쿼터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완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풋볼과 깊은 연을 맺었다. 고등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했고 1980년대 초 NFL 팀 인수에 실패하자 하부 풋볼리그(USFL) 소속 뉴저지 제너럴스의 구단주를 맡아 NFL과의 합병을 시도했다. 집권 1기 때는 인종 차별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례 때 ‘무릎 꿇기’ 시위를 벌인 NFL 선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슈퍼볼을 기념한 성명에서 프로풋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풋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여기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 가족과 친구, 팬들을 함께 모으고 지역사회를 강화해 국가적 연대 의식을 키운다”며 “이 연례 전통은 우리의 차이를 초월한다”고 말했다.

하마스, 인질석방 중단에 트럼프 “지옥 열릴 것” ... 가자 또 위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3주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인질 석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내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질 석방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에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10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가자지구 북부로의 귀환을 지연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합의된 인도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19일부터 단계적 휴전에 돌입했다. 앞서 5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인질 21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730여명을 교환했고, 오는 15일에도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명의 석방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마스가 현재 가자지구 내 억류하고 있는 인질은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고’라며 “이스라엘이 의무를 준수한다면 계획대로 교환이 진행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조치에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휴전 협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며 “군은 가자지구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마스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속된 시간인) 15일 정도까지 가자지구 내 인질을 모두 석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이 취소되고 하마스에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중동 국가들의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요르단과 이집트 등이 팔레스타인인 수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II. 칼빈의 신앙의 핵심

2. 우리들 자신에 관한 지식

어떻게 하면 우리들 자신에 관하여 확고한 지식에 도달 할 수 있을까?

4) 그 약함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약간의 선함을 보여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때도 마음은 여전히 내적인 더러움 속을 뒹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여전히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응시하신다. 아무리 현관해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룩의 외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선과 가증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외양 뒤편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사고가 잠복해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우리는 그의 존귀와 영광을 섬기며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가난에 몰린 채무자들과 같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죄악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끊어버린다(요 8:34-38; 롬 7:15-25).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 정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의 의무를 행할 수 없으며 행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이와같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호칭한다. 우리는 죽음과 파멸을 향

하여 돌진하는 자들이다(엡 2:1-3; 롬 3:9-20)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의, 권능, 생명, 구원 등 그 어느 것도 추구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 안에서 다만 불행, 연약함, 악함, 죽음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 안에 지옥이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호 13:4-9).

3. 기록된 율법

1) 율법을 주신 이유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린 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두셨다(롬 2:1-16).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은 우리의 양심이다. 양심은 우리 앞에 선과 악을 제시한다. 양심은 우리를 송사하고 때로는 저주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교만함과 야망에 잔득 부풀고,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 갈 수도 없고(자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죄악된 상황을 폭로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표현, 『기독교강요』 1.12; 2.83; 3.20.6; 4.17.20), 우리의 불행을 고백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무엇이며, 그 의를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다만 그분만을 응시해야 한다.

2) 우리의 모든 사고와 열망과 행동과 말은 그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옳은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이 의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보여준다. 모든 약속과 저주는 이 목표를 바라본다. 이것들은 율법 그 자체 안에 우리를 위해 제시되어 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명령받은 것을 완

전하고도 정확하게 성취할 수 있다면, 그는 영생의 보장을 받을 것이다(레 18:5).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이다. 이 의는 다만 하나님과 관련시켜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들 중에서 진정 의로운 존재가 있다면, 그는 그 같은 보상을 받기에 합당할 것이다. 반면,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의로움을 완전히, 그리고 예외 없이 지키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시며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신다(신 27:26; 갈 3:10).

3)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모든 인류는 이 같은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분명히 긴장감을 느낀다.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라면 한 사람도 그 같은 긴장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이 뜻을 성취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롬 3:19; 7:7-25).

율법은 하나의 완벽한 의의 거울이다(『기독교강요』 2.7.7; 3.18.19).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우리 얼굴에 있는 흠집을 보듯이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와 저주를 분별해내고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이 기록된 법은 사실상 자연법의 증인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된 법은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며 우리 안에서 자연법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는데 실패한 내용들을 정선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법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시오 아버지이심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영광, 존귀, 그리고 사랑은 오직 그분의 덕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의무들을 완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저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만 하게 되어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십자가 전쟁

내가 우리 동네를 좋아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치노 힐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곳 저 곳에 많은 언덕이 있는 것이다. 집에서 오분 정도 걸어가면 나지막한 언덕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된다. 특별한 아침 스के줄이 없는 한 나는 매일 뒷산 언덕을 오른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을 즐기기도 하고 새소리에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한다. 언덕을 오르다 보면 자주 만나는 얼굴들이 있다. 그 중에는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도 있다. 그 분들이 섬기던 교회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밀었기에 주중에는 그 교회로 새벽기도를 갔었고 두 분과는 그 때부터 가끔씩 식사교제를 하는 사이가 됐다. 두 분이 개척했던 교회는 넓은 부지에 예배당을 잘 건축했다. 그러나 건축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분열되는 바람에 재정난에 부딪혔다. 몇년간 애썼지만 결국은 교회 건물을 포기해야 했고 목사님은 목회를 접으셨다. 교회는 건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두 분의 교회 건물에 대한 애착은 많이 컸었다. 그래서 새로 그 건물로 이사해 들어온 한국 교회의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것도 거절할 정도로 두 분의 상처는 깊었다.

언덕의 정상에 올라가면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는 넓게 펼쳐진 초원과 함께 동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목회를 접으신 후 미국교회에 출척하시는 목사님 부부에게는 기도 자리가 되었다. 두 분은 언덕의 정상에서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며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 목사님은 어느 날 나무 십자가를 언덕 꼭대기에 꽂아 놓았다. 그 십자가는 한 동안 잘 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하기도 했다. 작년 부활절 즈음에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누어 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쓴 꽤 큰 플래카드를 십자가 옆에 꽂아 놓으셨다. 어느새 언덕의 기도 자리가 목사님에게는 교회 장소가 된 것이다. 부활절 플래카드는 며칠 후 사라졌다. 마침 목사님 부부가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플래카드를 뽑아서 언덕 밑으로 던져버린 것이다. 당연히 작은 논쟁이 있었고 그 사람은 “너희 집에 나 꽂아 놓지 왜 이곳에 그런 것을 꽂았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사모님은 산을 내려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 십자가를 다시 꽂고 뽑아버리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목사님은 집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많아서 얼마든지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하신다. 나는 목사님 부부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하고 집까지 팔아 현금해서 건축했던 교회건물을 잃은 후 언덕의 예배장소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곳은 공공의 장소이므로 개인의 특정한 신앙의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에 한국에서 다니러 온 친구들과 함께 뒷산을 갔다가 목사님 부부를 만났다. 목사님 손에는 십자가와 망치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가 뽑아버린 십자가를 다시 세우려고 가져 왔는데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세워 놓고 튼튼한 철판으로 뒷받침까지 해 놓아서 이제는 쉽게 못 뽑을 것 같다고 좋아하셨다. 그런데 이를 후에 가보니 그 튼튼하게 세워 놓은 십자가는 또 안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나무로 십자가 형태를 만든 것이 다시 세워져 있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듯이 열심히 십자가를 뽑아 내던지는 사람도 달갑지는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계속 십자가를 세워 놓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종교전쟁으로 불리는 십자군 전쟁이 아닌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십자가 전쟁이 우리 집 뒷산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linda.pyun@itsla.edu

세기로뻘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세계로 뻘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d>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ccusa@yahoo.com / www.lafcc.com Tel:(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d>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td></td></td>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ccusa@yahoo.com / www.lafcc.com Tel:(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d>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td></td>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d>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jpcsa.org 170 Bir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d>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ibleh@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a.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td></td></td>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jpcsa.org 170 Bir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d>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ibleh@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a.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td></td>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ibleh@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a.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ibleh@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a.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a.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a.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구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td>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d>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어려서부터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td></td></td>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d>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어려서부터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td></td>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어려서부터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성인/청년): 오전 11:45 송-금동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td>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d>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오 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C-통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0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C-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u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td></td></td>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d>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오 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C-통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0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C-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u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td></td>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오 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C-통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0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C-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u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C-통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0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C-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u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목회서신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체르키 부족의 성인식

미국에 살고 있는 인디언 중 체르키 부족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의 교류와 교역, 군사 협력으로 한때는 번성했지만 미국 독립 전쟁 때 영국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 들어선 미국 독립 정부로부터 핏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32만여 명으로 미국 오클라호마 동부지역에 주로 모여 살며 연방정부로부터 자치권과

주권을 존중 받고 있는 체제가 잘 정비된 원주민들입니다. 체르키 부족의 소년들은 어릴 적부터 사냥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며 부족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성인식을 할 때 담력을 훈련하는 시험을 거치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가족들과 부족의 보호를 받았던 소년은 짐승들과 독종들이 우글거리는 산속에서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룻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밤새도록 눈을 가린 채 짐승들의 울부짖음의 두려움과 혼자라는 고독감에 영원처럼 느껴졌을 찰흙 같은 밤을 지나 아침이 되어 가리웠던 눈 가리개를 벗었을 때 우거진 나무와 꽃들과 오솔길 사이로 실루엣처럼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는 아들을 사나운 짐승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노라면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고독감과 외로움, 번민과 고통, 두려움과 염려 걱정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

시지도 않고 밤낮 너를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 121편)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라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사52:12).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고전10:13).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오리라”(요14:1,18)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하나님이 됩이니라 내가 너를 군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cefyeo@hanmail.net

사순절을 맞으며...

USA 사순절 프로젝트 준비중인 ‘월드쉐어’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



지난해 부활절을 맞아 아이티 소망학교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학생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

국제 구호활동을 하는 종합 선교기관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매년 사순절이 다가오면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월드쉐어 USA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사순절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을 지키자”는 캠페인과 함께 올해도 준비 중이다. 사실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순절을 별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개신교에서 사순절 전통이 약화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초창기 사순절은, 영성 훈련과 영적 성장과 교회 갱신의 중요한 절기였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황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다. 테일러 마셜이라는 학자는 당시 사순절이 지금의 라마단보다 훨씬 혹독하고 길었다고 말한다. 교황 그레고리 1세(Pope Gregory I, 540-604)는 피가 섞인 고기

를 먹지 못하게 했고, 8-9세기부터는 계란도 먹지 못하게 했다. 게오르크 스텐겔은, '사순절 내내 계란을 금지해, 계란이 남아돌게 되었고, 그것이 부활절 계란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분석한다. 또, '고기는 안 되지만, 어류는 된다'고 해서, 수도원에서 고기를 물에 담갔다가 꺼낸 후 이것은 물고기라고 주장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수도원은 이런 식으로 지나친 금육에 저항하기도 했다.”

초빙글리가 활동했던 1500년대에는 사순절에 소시지도 금지되었다. 당시 취리히의 한 인쇄업자가 노동자들에게 성경 출판 기념 파티를 하면서 소시지를 대접했는데 로마 교회는 이것을 문제 삼아서 그들을 처벌하려 했고 초빙글리는 이에 저항했다. 사순절 논쟁이 초빙글리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World Share USA는 사순절 기도와 함께 저축한 선교비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사순절〉을 강조한다.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금식비

를 모아 월드쉐어 USA에 전달하면, World Share USA 선교지와 구호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World Share USA는 통상 극빈국 선교대상지 즉 아이티와 수리남, 필리핀, 도미니카의 극빈 아동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의 생활개선과 부활절 행사 그리고 전도를 위해 금식으로 모은 선교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는 LA 지역 산불 피해자 가운데 한인 가족들을 돕는 것도 포함하기로 했다. 어느 목회자를 포함해서 큰 피해를 당한 한인들도 다수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올해 월드쉐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순절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목회자들이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목회자들은 수년간 동역하며 교제해 오고 있다. 모쪼록 사순절 나눔의 금식 프로젝트가 성도 개인에게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고, 교회에는 갱신과 성숙의 기회가 되고 모두에게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송정명 목사가 신임 한기홍 목사에게 공동대표회장 추대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기홍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추대

미주성서화운동 본부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추대하여 송정명 목사와 함께 공동대표회장제를 유지해 가기로 했다. 그동안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공동대표회장으로 사임했지만 지난해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

총회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해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사역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사임하고 공동 회장직을 맡아 계속 미주성서화운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9일(주) 오전 11시 20분 은혜한인교회 제3부 예배

시간에 한기홍 목사에 대한 공동대표회장 임명식이 열렸다. 이사장인 김재권 장로가 임명장을 전달하고 공동대표회장인 송정명 목사가 추대패를 전달했다. 송 목사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의 간단한 활동 등을 설명한 후 “한기홍 목사님을 공동대표회장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이를 계기로 삼아 성서화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은혜교회 성도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3부 예배는 케니 박 목사의 통성 기도도 예배가 시작되고 김현욱 전도사의 경배와 찬양 인도, 장영호 장로의 대표기도, 한기홍 목사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 끝까지 제자들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김대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달라스뉴송교회 김대영 목사 초청 예배 및 세미나

“우리의 인생의 향로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달라스뉴송교회(담임 현지용 목사)가 지난 1월 31일(금)부터 2월 2일(주일)까지를 선교주간으로 정하고 워싱턴 헬로십교회 김대영 담임목사를 초청, 금요기도회, 선교세미나, 주일예배를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현지용 목사 사회로 2월2일(주일) 오후 12시에 열린 예

배에서 김대영 목사는 ‘삶의 우선 순위(학개 1: 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대영 목사는 “비행사가 비행하기 전에 항로를 정한다. 하지만 비행은 항 중 90% 이상 항로를 벗어난다. 그렇지만 항로를 수정하여 목적지에 잘 도착한다”며 “우리 모두도 인생의 항로에서 정

상항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수정해주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끝에는 고통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뒤에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며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에 뜻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그럴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다시 한 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김대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살 날이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1면에서 계속〉

하지만 그 점으로부터 영원으로 뻗어 나가 결코 끝나지 않는 선이 이어져 나온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는 점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선을 위해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길 바란다. “내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일들을 시작하라.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죽는 경우에, 미리 말하지 못해서 후회했을 바로 그 말을 지금 하라는 것이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이 아니라 오늘 말이다. 당신과 그 사랑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사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두 사람 다 죽고 없을 것이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지금 손에 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못다 한 말이 남아 아쉽지 않도록 당장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는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살아가라.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 슬픔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에 어느 정도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회를 준다. 제대로 활용하자!

by Randy Alcorn, TGC



동부교계 게시판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 (UPCA) 정기총회 및 목사고시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회장 김영빈 목사)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목사고시는 3월25일, 26일 2일동안 진행한다.

▲ 문의: 609-298-2461

한동대 · 뉴욕한인청소년센터 국제 여름 캠프

뉴욕한인청소년센터와 한동대학교는 7월7일부터 17일까지 한동대학교(한국 전역)에서 '제7회 한동대학교와 뉴욕한인청소년센터 국제 여름 리더십 캠프'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8학년 이상 청소년이며 신청서 및 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신청마감은 2월21일이다.

▲ 문의: 718-353-1388 (사무총장 최치호 목사)

벤엘교회, 소망유치원 여름캠프 온라인 등록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7월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연령은 2019년 9월2일 생부터 2021년 9월1일 생 까지이며 등록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 문의: 여선정 원장(443-538-8745, hccc@bethelchurch.org)



영생장로교회, 사랑부 워크샵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 사랑부는 2025년 2월 23일(주) 오후 2시 찬양대 연습실에서 '하나님의 사랑, 포용 그리고 돌봄 자패성 장애에 대하여' 주제로 이미립 박사(ELMC)를 강사로 초청하여 워크샵을 개최한다.

▲ 문의: 215-542-0288



5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한인동산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감사예배

“하나님 교회의 조건들”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는 설립 50주년 감사주일예배를 2월 9일 드렸다. 한인동산장로교회는 이은수 원로목사가 1975년에 13명의 교인들과 교회를 시작하고 33년을 목회하다 2008년 은퇴하고, 이풍삼 목사가 이어받아 17년 동안 목회를 해 왔다.

주일 2부 예배 중 이풍삼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 - 한인동산장로교회(디모데전서 3: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앞으로 5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특히 눈물과 땀이 주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1세기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예배 후 설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수 원로목사와 이풍삼 담임목사, 그리고 당회 서기와 50주년 기념준비위원장 장로가 함께 50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을 가졌다. 성도들은 두 분 목사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은수 원로목사는 50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나누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자매 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 또한, 지난날 굶은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셨다가 이제는 떠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이풍삼 목사님의 훌륭한 지도력과 헌신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숭실대 뉴욕동문회 신년하례식

“평양캠퍼스 설립” 지지 결의

숭실대학교 뉴욕동문회의 신년하례식이 2월 8일(토) 정오, MIZUMI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펼치는 목사들과 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동문들 2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은퇴한 박희소 목사, 뉴욕성결교회 은퇴 장석진 목사, 그리고 한 뉴욕동문회 회장인 박성원 목사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1897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에 의해 평양에서 설립된 숭실대학교

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해 온 한국 근대사의 산증인이다. 신사참배 거부로 1940년 폐교된 후 1954년 서울에서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128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2030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숭실대학교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을 거듭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숭실대학교의 뜻에 따라 뉴욕 동문회에서도 지원을 보태기로 했다.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시무 감사예배 및 제4회 총회 개최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시무 감사예배 및 제4회 총회

회장 이준성 목사 · 부회장 허윤준 목사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회장 이규형 목사)는 2월 6일(목) 오전 11시, 산수갑산 한식당에서 2025년 시무 감사예배 및 제4회 총회를 열었다.

허윤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사라 목사의 기도, 이준성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설교, 허걸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준성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시 119:105-112)’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에서는 신현국 목사(선거관리위원장)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선포하며,

신임 회장 이준성 목사와 부회장 허윤준 목사를 추대했다. 이어 이임사에서 이규형 목사는 “시원하다,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예스터 회장(뉴욕지역한인회 연합회), 채왕규 목사(대필라델피아목사회 회장), 박성술 회장(뉴욕한인노인상조회)의 축사와 이병홍 목사(뉴욕원로목사회 회장)의 권면이 있었다. 이병홍 목사는 “교역자연합회가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축하하며 응원한다”고 전했다. 모든 순서는 이만호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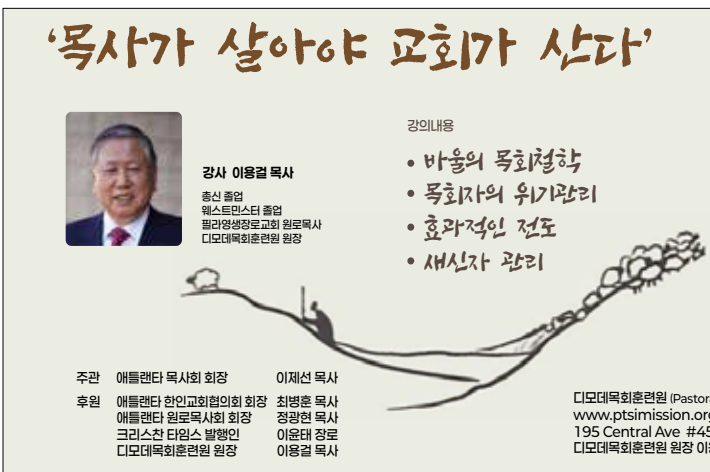
애틀랜타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 개최

24일, 25일 “목회자의 영적 건강이 교회를 살린다”

애틀랜타 목사회(회장 이제선 목사)가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2월 24일(토)과 25일(일) 양일간 새날장로교회(류근준 목사 시무)에서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개최된다.

은퇴 후에도 디모데 훈련원 원장으로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는 이용걸 목사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 목사는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고 강조하며 “목회자가 바르게 서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확신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울의 목회 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하며 “바울은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였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목회 원리를 적용하면 교회 성장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바울의 목회철학 △목회자의 위기관리 △효과적인 전도 △새신자 관리 등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특히, 효과적인 전도 강의에서는 실제 전도 경험이 풍부한 우장환 장로가 직접 전도 훈련을 가르칠 예



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부목사, 전도사, 개척 교회 목회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이목사는 “영생장로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새 생명 운동’이었다. 이를 통해 이민 교회에 적합한 전도 방법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목사와 전도사도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개척 교회를 이끄는,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미나 참석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세미나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민 교회 성장에 대한 실제 경험과 방법을 제공하기에 가른친 것을 그대로 따르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신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이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404-915-4717, 732-322-3453으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1차 임·실행위원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1차 임·실행위원회

“막힌 동굴이 아닌 열린 통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2월 7일(금) 오후 3시, 뉴욕교협 2층 예배실에서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열었다.

회장 허연행 목사는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막힌 동굴이 아닌 열린 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올 수 있었다. 하루를 섬기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잘 걸어오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김영환 목사(협동총무)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김홍석 목사(증경회장) 기도, 양민석 목사(증경회장) 설교, 김일태 장로(수석협동총무) 헌금기도, 황동익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이어졌다. 양민석 목사는 ‘뒤틀림, 뻄뻄, 곱셈, 나눗셈(행 11:19-2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장 원리를 영적 수학 공식으로 설명했다. 그는 “뒤틀림: 좋은 소문, 하나님의 은혜, 영적 지도자가 더

해지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뻄뻄: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며 장벽을 허물고, 공동체 내 불신과 형식주의 등을 제거해야 한다. 나눗셈: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곱셈: 단순한 성장에 머물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확장한다”고 설명하며 “교협도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다시 세워지고 희망을 품으며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환 목사의 인도로 △조국 한국과 미국의 정치·사회 안정 △교계의 연합과 교회 부흥 △부활절 연합예배 △치료 중인 킨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무 보고는 허연행 목사의 지도로 시작되었으며, 총무 김명옥 목사의 회원 점명 후 사업보고,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보고, 재정보고(51회기), 교협 주소록 경과보고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평신도 총대 회복 방안과 해별 안건을 논의했다. 회원 평신도 총대에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 다음 임·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해별 안건은 결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1차 임·실행위원회는 김용걸 신부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2(주) 오전 오창 회광교회(이정일 목사) 010-4613-8179
3(월) 저녁 서울 위대한약속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6(목) 오전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제27대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취임식 설교
정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3층 그레이스홀(연락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논산 신병목교훈련소 진중세례식 장소 : 연무대학교
8(토) 오후 주관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서부지역장로연합회(회장 이해중 장로)
서울 기독교 교육방송(대표 김규임 목사, 국장 홍성남 목사)
010-4242-5022 기독교연합회관 311호
11(화) 오후
13(목) 오전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제244차 해외성회 (244th Overseas Assembly)

13(목) ICN KAL 18:10 ⇒ New Zealand (Auckland)
14(금) 뉴질랜드(New Zealand) 금요일야성회
15(토) 뉴질랜드(New Zealand) 소망교회 7천 기도클럽 New Zealand 지부 MT
16(주) 오전 뉴질랜드(New Zealand) 예수찬양교회(박성열 목사)
16(주) 저녁 뉴질랜드(New Zealand) 오클랜드 연합부흥성회
17(월) 오전 뉴질랜드(New Zealand) World Gospel Bible College
18(화) 오전 뉴질랜드(New Zealand) Seminar for Pastor and Missionaries
19(수) 저녁 뉴질랜드(New Zealand) ⇒ Seoul Korea

21(금)~22(토) 천안 위대한약속 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23(주) 오전 서울교회(박성기 목사) 010-5276-7313
24(월)~26(수) 안산 팔복교회(한베드로 목사) 010-8545-7114 새성전 이전 감사축복대성회
오후, 저녁
25(화) 오전 서울 국회대로 UN교회(최명숙 목사) 010-4025-0691
27(목) 저녁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 주최 : 대한민국 나라사랑 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658-9006
28(금) 오후 마리아나 TV 복음방송 신년하례예배(대표 김도배 목사) 010-8954-8956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6(모교로)
남서울중앙교회 Tel. 02) 3411-9191
Fax. 02) 401-7770



디사이플교회 2025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

디사이플교회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찬수 목사 초청, 2025 부흥성회 개최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는 2025 부흥회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9일(주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마지막 날 부흥회는 디사이플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정계빈 집사가 기도했으며 디사이플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찬수 목사가 ‘하나님과과의 친밀감 회복(출 33: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과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 죄를 범했던 과거와 결별을 해야 한다. 본문 출 33:3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게 해주겠지만 함께하지는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다. 그리고 5절에 장진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을 하신다. 장진구를 떼어내라는 의미는 죄를 범

했던 과거와의 결별이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가 장진구이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문화”라고 말하며 “장진구를 떼어내는 것은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단추가 시작된다. 둘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6년 전 앨버인 지역에 디사이플교회라는 아름다운교회를 만들기까지 교인들이 한 수고가 귀하다. 이민교회에 접대기만 남은 교회들이 많다. 디사이플교회 2세들은 물론 3세와 4세대들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 사람이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이찬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 창립 8주년 기념예배에서 김경진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케익커팅을 하고있다

기쁜우리교회 창립 8주년 기념예배

“첫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교회되자”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창립 8주년 기념예배가 9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허창도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정지일 장로의 기도와 찬양대 찬양이 있었으며 이어 김경진 목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제 2: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경진 목사는 “8년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게 함께 섬긴 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년을 지나면서 우리교회를 생각해본다. 교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중 예수그리스도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문에서 나오는 처음사랑의 제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전히 끝까지

아무조건 없이 사랑을 부여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창립 8주년을 맞이한 우리 기쁜우리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은퇴식을 가졌는데 이호수 장로와 최계자, 여미령 권사가 은퇴했으며 이들에게 은퇴찬화패를 전달했다. 이어 창립 8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경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구호물품 전달

샌디에고 주사랑교회(이요한 목사)에서 LA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지난 1월18일(토) 오전 12시에 LA소방국 소속 44스테이션과 남가주 교회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Bottled water △Unused clothing △Baby needs(diapers, wipes) △Unused Blankets △마스크 N95, KN95, KF94,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샌디에고주사랑교회는 LA 지역 화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분들을 위해 구호물품과 물품 Eaton 지역 소방서에 전달하였다.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연주회를 마치고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출연진들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연주회 성황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축제”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창립 40주년 기념연주회를 8일(토) 오후 4시30분에 성황리에 열었다. 방상용 목사는 “세리토스선교교회가 이곳 세리토스에 설립된 지 40년이 되었다”며 “연합찬양대가 작년 7월부터 메시아 전곡을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세리토스선교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사를 이 지역과 땅 끝까지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삶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음악회

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연주회장인 분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연주회는 방상용 목사의 인사말과 유진국 장로의 기도도 열렸으며, 세리토스선교교회 연합찬양대(지휘 김연주 박사, 오르간 정다운, 피아노 레이첼 한)가 헨델의 메시아를 들려주자 찬양대의 수준 높고 은혜로운 찬양에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또한 소프라노 윤예원, 엘토 조지영, 테너 오위영, 베이스 채홍석이 솔리스트로 참여해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방상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25 미주한인의날 기념식 평가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평가회 열려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는 2025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평가회를 지난 3일(월) 오전 11시30분 흥연 식당에서 가졌다. 이병만 회장은 “한국의 상황과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올해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을 잘נה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돕는 손길이 있었기에 잘 마쳐질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숙 부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미주한인의 날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었다. 모든 일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회장님이 준비 단계부터 기도 시작했고 한국방문 시 새벽기도회 참석할 정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다”고 말했다. 미미송 박사(수

석부회장)는 “미 주류사회에서만 활동을 해왔었는데 미주한인재단과 이병만 회장께서 미주한인의 날이라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주한인재단을 통해 한인이민역사가 후세들에게 널리 알려져 코리언아메리칸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이 확고해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혜 준비위원장은 “LA에 많은 단체와 행사가 있지만 미주한인의 날 행사는 다음세대들을 위해 필요한 행사”라며 “이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행사를 위해 협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싼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출판감사예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여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



이흥주 장로 저서 출판감사예배가 영락교회서 열렸다

남가주장로성가단장이자 보석상 ‘젬텍’ 대표 이흥주(Andrew Lee) 장로 ‘싼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코람데오 출판사)’ 출판기념감사예배가 지난 1월 20일(월) 나

성영락교회 2층 영어부 교육관에서 열렸다.

김경생 목사(네팔 선교사) 사 회로 드린 예배는 김종명 목사의 기도와 이성주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성주 목사는 ‘

서부교계 게시판

베델교회 2025 봄 부흥회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2025 봄 부흥회를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류인현 목사(뉴욕 뉴프론티어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4일(금) 저녁 7시30분, 15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 16일(주일) 예배시간(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2시)이다. ▲문의: (714)512-7095

제11차 OC 기관 및 단체장 초청 연합조찬기도회

제11차 OC 기관 및 단체장 초청 연합조찬기도회가 15일(토) 오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흥 목사) 2층 친교실에서 열린다. ▲ 문의: (714)909-0933

태평양법률협회 법과 교회 컨퍼런스

태평양법률협회는 제4차 법과 교회 컨퍼런스를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에서 ‘MZ 세대 부모와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목회자,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학부모, 교육부 부장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본회 설립자 브래드 대쿠스 박사, 마이크 페퍼 변호사, 주성철 목사 ▲ 문의: (714)640-7471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예배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는 교회창립 36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를 16일(주일) 오후 3시에 갖는다. ▲ 문의: (858)278-3210

오렌지한인교회 수요 특별찬양예배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는 수요 특별찬양예배를 한국, 일본, 미국에서 사역하는 찬양사역자들과 음악선교사들로 구성된 찬양팀 ‘J+워십투어’와 함께 드린다. ▲ 문의: (714)871-8320



GMU와 AI연구소연합이 MOU 체결했다. 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최윤식 AI연구소연합 대표, 가운데가 최규남 GMU총장

그레이스미션대학교, AI연구소연합 MOU 체결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 총장 최규남)가 AI연구소연합(대표 최윤식 소장)과 지난 1월 31일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MU최규남 총장과 AI연구소연합 최윤식 소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신학 교육을 강화하고, AI연구소연합과 협력하여 미래 목회 및 선교에 맞는 실무형 인재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최규남 총장은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 요소이며, 신학 교육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AI연구소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AI 교육을 제공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I연구소연합 최윤식 소장은 “AI는 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미래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AI 융합 교육을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교육 및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AI 융합교육학과 설립 및 커리큘럼 개발 △AI융합교육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 활동 추진 △GMU 및 학과의 국제 교류 및 인지도 향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edu (기타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생전에 가야할 아름다운 순례지(약:2:14-18)’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의 땅 끝 마을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선교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고 사도 야고보 역시 행동하는 신앙을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이다. 그 분이 땅 끝 마을이라 믿고 걸었던 산티아고 길을 따라 걷고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는 위로와 희망의 순례길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팀의 축하와 정요한 목사(전 크리스천헤럴드 사장), 김도립 장로(전 남가주장로성가단 단장)의 축사가 있는 후 정요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순서를 통해 감사인사와 함께 만찬을 나누며 교제

의 시간을 가졌다.

본서에는 이흥주 장로의 3형제인 이성주 목사, 이흥주 장로, 이창주 집사가 35일 동안 199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800km를 순례했던 여정이 담겨있다. 저자는 1980년 미국으로 이민, 젬텍 보석전문회사를 40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제22대 남가주 장로성가단 단장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홍누영교회를 비롯해 20여 개국에 교회와 신학교를 세웠다. 또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한센환자들을 위한 특수선교를 포함한 여러 선교활동을 인정받아 브라질 FATEFE 신학대학원에서 명예선교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책 구입은 세종문고와 드르가서점, 생명의 말씀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213)321-7704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교회 식당을 부탁해… 세프 섭외하고 외부 업체에 맡기기도”

식탁 교제 위한 새로운 시도

서울 영등포구 영은교회(이승구 목사)는 식당 운영을 위해 세프를 고용한 지 1년이 넘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 중 하나다. 그동안 권사님들이 교회 식당을 맡았지만 직장인 예배나 노인대학 등 평일에도 식사를 준비할 일들이 늘어나면서 마려한 대책이다.

식당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일 장로는 “행사가 있는 평일에는 100인분이 넘게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연세 많은 권사님에게만 맡겨두기는 쉽지 않은 일”며 “세프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좀 더 들었지만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해 결정했다. 주일 식사를 위해서는 토요일에 봉사자들이 나와서 재료 손질 등을 함께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세프가 음식을 맡으면서 성도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김 장로는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교회 식당이 고급화됐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교회 식당이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회 식당의 다양한 변신이 이어지고 있다. 식사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사례도 늘었다. 특히 한 번에 100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대형교회는 외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외부 업체를 통해 식사를 판매하고 있다. 식당 재개를 논의할 때 주일 근무를 할 직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도 외부 업체와 계약한 이유 중 하나다.

김영규 행정목사는 “교회 식당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과 저녁, 주일엔 점심만 운영하고 있다”며 “평일에도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세운 복지단체 이용자 등 평균 350여명이 식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식당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도 있다.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 로템나무식당은 주민과 인근 회사 직장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식비는 성인 6000원, 미취학 아동 2000원으로 요즘 물가의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성도들을 포함해 많게는 일주일에 2000여명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교회에서 식사를 판매하려면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많다. 하지만 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목적으로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담임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 식당 운영을 재개했을 때 식당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다면 식사권을 소중히 갖고 있다가 사용하는 단골들이 많았다. 그런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기만적 ‘종교용지 변경’ 무산…

法 “직권취소 정당”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에수교증거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의 포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우희)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근처 주거단지 한 물류센터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주인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A씨는 물류시설 건물을 매입했으나, 실소유자는 신천지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지역 시민단체 내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A씨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6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같은 해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용도변경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천지가 매입한 건물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17곳이 위치해 학생들이 이단 포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신천지 시설인 것을 몰랐다”며 해명하면서 신천지 측에 승인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건을 직권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에서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며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성용 풍동입주자회장단연합회 대표회장은 “주민들이 마음이 모였기에 신천지가 지역에 침투하는 일을 막아실 수 있었다”면서 “항소와 상고로도 이어질 수 있단 생각으로 앞으로도 신천지의 악영향과 문제점을 철파하고 밝히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북한 종교 탄압 강력 규탄… 한국 교회가 나설 때

북한 23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미국 상원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종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극심한 종교 박해를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 종교 자유 지지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팀 케인 의원과 공화당의 탐 킬리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투옥 등을 통해 자행되는 종교 탄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무부에 ‘국제종교자유법’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을

근거로 종교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외교적 조치와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종교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며, 세계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알려진 지배 이념에 반하는 모든 종교가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 이후 23년 연속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6월 발표된 ‘2023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 내 종교 활동이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

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임창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와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내비친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북한 정권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 의회가 북한의 종교 탄압과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국제적 압박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했다. 임 목사는 “북한이 23년 연속 최악의 종교 박해국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번 미 의회의 선언이 북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기대한다”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도 북한 동포들의 신앙과 자유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교회와 북한 인권 단체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캠페인을 더욱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북한 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이념적 갈등을 넘어 북한 동포를 위한 사안만큼은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적 교회학교’ 꿈꿔…청소년들 방방뛰며 찬양과 기도

양양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 순회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대표 최세롬 목사)이 오는 22일부터 학교연합집회 순회를 시작했다. 올해는 강원도 양양 아름다운교회(박광식 목사)를 시작으로 경기남부 파주 목포 성남고 양 양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학교연합집회는 다음 달

8일 경기도 파주 거룩한빛운정교회(유정상 목사), 15일 경기도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와 전남 낙원교회(최요한 목사), 22일에는 대구 화원교회(신용기 목사), 29일 경기도 평촌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까지 이어진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법인이사장에 주승중 목사…

총회장 황성주 박사, 운영이사장에 황덕영 목사 선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는 10일 인천 부평구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법인이사장에 주승중(주안장로

교회) 목사, 총회장에 황성주(국제사랑의봉사단) 박사, 운영이사장에 황덕영(새중앙교회)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국내 이주민 사역 강화를 골

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이주민 다음세대 및 부모 복음 초청집회’ ‘성경적 이주민 부모 교육 세미나’ ‘제2회 부울경 이주민 다음세대 찬양 및 장기기증 경연대회’ ‘제2회 부울경 이주민 사역 전문인 콘퍼런스’ 등이 예고돼 있다.

사무총장 단임후보로 출마한 강대홍 전 사무총장은 연임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정기총회까지 4년이다. 법인이사회 부이사장과 서기에는 이재훈(온누리교회) 이어백(주사랑선교교회) 목사, 운영이사회 부이사장과 서기는 고성준(수원하나교회) 조지훈(기쁨이 있는교회) 목사가 각각 뽑혔다. KWMA 전 이사장인 이규현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는 “평소 선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고 관심이 많아 감사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뒤에서 섬기겠다”며 새로운 임원단 구성을 축하했다.

비기독교인에도 문 활짝… 도심 교회 갤러리서 힐링을 선물 받으세요

교회와 사회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일은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추구해 온 지향점이다. 그중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은 일상에서 정서적 해탈을 느끼게 해주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도심 속 교회가 마련해 놓은 갤러리에서 오감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작품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 종로구의 북촌과 삼청동 골목은 한옥마을 특유의 고즈넉함과 젊은 세대가 찾는 힙플레이스가 어우러지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안국역 1번

출구를 뒤로하고 윤보선길로 걷다 보면 소허당(笑虛堂)이란 이름의 ‘ㄱ’자형 한옥이 눈에 띈다. 겉보기엔 잘 보존된 한옥 가정집 같지만 이곳은 안동교회(황영태 목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이다.

‘성령의 은총을 힘입고 허심교회가 마련해 놓은 갤러리에서 오감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작품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 종로구의 북촌과 삼청동 골목은 한옥마을 특유의 고즈넉함과 젊은 세대가 찾는 힙플레이스가 어우러지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안국역 1번

2019년 세계적 건축상인 ‘아키텍처 마스터 프라이즈(AMP)’을 수상하며 ‘한국의 노트르담’으로 평가받은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가 세워져 있다. 교회는 도심의 빌딩 숲속에서 유려한 곡면 외벽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입구에 마련된 광장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오방색의 육면체 오브제 31점이 ‘Prelude_감정의 폭포’라는 이름의 공공미술로 펼쳐져 있어 시각적인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계절 어느 때나 이곳을 찾는 이들이 작품에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돼준다.

교회 1층에 자리 잡은 새문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70]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들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벧전 1:1)로 시작된 베드로 서신에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나온다. 또한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행 2:9)의 언급을 보듯이 유대인들의 흠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곳이 터키의 중부내륙지역인 갑바도기아 지역이다. 갑바도기아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융합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다. 히타이트는 철기와 법률의 혁신을 남기고, 페르시아는 행정과 교역의 기반을 남겼으며, 헬레니즘은 예술과 철학을, 로마는 도로망과 초기 기독교의 확산을, 비잔틴은 기독교 신학과 암석 교회를 남기고, 이슬람은 모스크와 상업 네트워크를 남겼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며 믿음의 후손들이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장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히타이트 제국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히타이트 제국은 튀르키예의 동북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원하여 제국을 이루었다. 히타이트(Hittites, 기원전 1600년~1200년경)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강력한 제국으로, 갑바도기아의 초기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발전시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법전을 제정하였다. 이 법전은 상대적으로 인도적이며 처벌보다는 보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었다. 행정적으로 지역을 소규모 관할 구역으로 나누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관리를 배치하였다. 그들의 종교적 특징은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신과 전쟁신을 숭배하였다. 신과 인간의 계약 개념이 히타이트 종교에서 발전하였으며 이는

근동지역의 종교 사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의 수도 하투샤는 강력한 방어 요새와 성벽으로 유명하며 갑바도기아 지역에도 히타이트식 방어 건축물이 남아있다. 바위에 새겨진 신전과 비문은 히타이트 예술과 종교의 흔적으로 보여진다. 히타이트는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와 교류하며 국제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제국 중 하나였다. 카데시 조약 (기원전 1259년)은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의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으로 유명하다. 히타이트 제국은 기원전 1200년경 바다 민족의 침입으로 수도 하투샤와 주변 도시들이 파괴되고 가뭄, 내란, 경제적 붕괴가 겹치며 제국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기원전 1178년경 제국은 멸망하고 중심 정부가 붕괴되었으나 소규모 히타이트 도시국가들이 시리아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존속하였다.

이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8세기 경 아시아리에 의해 멸망되었고, 히타이트 문화는 주위의 문화와 동화되어 점점 사라졌다. 히타이트인들은 아나톨리아 중심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은 현대 터키인의 조상 중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의 문화적, 유전적 흔적을 어느 정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에 수많은 민족들 (페르시아, 헬레니즘 그리스인, 로마인, 셀주크 튀르크인, 오스만인 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히타이트의 유전적 기여는 오늘날 터키인들에게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쿠르드인과 시리아인들로 히타이트 유산의 간접적인 후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언어와 관련된 일부 요소가 고대 시리아 지역 언어와 융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히타이트 언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히타이트인이 인도유럽 민족의 일부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히타이트인의 먼 조상은 오늘날 인도유럽 민족과 언어적 뿌리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췌기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멸

망 이후에도 언어적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단어와 개념은 고대 근동의 언어들과 융합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적 유산인 자연신, 태양신, 폭풍신 등 숭배한 것들은 후대 근동 종교 특히 후르리인과 아시리아인의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 폭풍신의 숭배는 후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폭풍신 바알 숭배로 이어졌다. 히타이트의 건축 양식, 예술, 법률 체계는 이후 아나톨리아 지역 문화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현재 터키의 고고학 유적지는 히타이트의 유산을 증언하며 오늘날 터키 정부는 이를 자국의 문화적 기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히타이트 제국의 후손을 특징한 현대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히타이트 제국 멸망 이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아나톨리아 지역에 유입되며 융합되었으며 여러 민족 세력들의 유입으로 히타이트 혈통은 희석되었다. 또한 언어가 기원전 7세기경 소멸되었고, 그 이후 아카드어, 아람어, 그리고 튀르크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 이슬람화된 터키와 쿠르드 지역에서 더 이상 독립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히타이트의 유산은 오늘날 터키, 쿠르드, 시리아 민족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 언어, 법률, 종교적 유산은 아나톨리아 지역의 후대 문명에 통합되어 오늘날 터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킨 주원인이 되었던 바다 사람들은 그 기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대해서 이집트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람세스 3세가 기록한 메디넷 하부 비문에 따르면 바다 민족은 여러 집단들의 연합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성경의 블레셋과 연관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나인인과 관련이 가능성이 있으며, 세켈레쉬라는 시칠리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나톨리아 남서부의 루키아인과 관련이 있을만큼 지중해 동부와 서부의 여러 지역에서 유래

한 집단들의 연합체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주로 경제적, 환경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공격하고 약탈함으로 멸망에 이르게한 이유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집트와 충돌하여 공격하였으나 람세스 3세 (기원전 1186-1155년)의 저항에 의해 패배하였다. 그들은 동지중해의 많은 문명을 파괴하거나 약화시켰다. 이들로 인하여 청동기 시대가 끝나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는 동기를 제공하였지만 스스로 기존 문명과 동화되어 그들 독립적 정체성을 크게 남기지는 않았고, 그 이후 일어나는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 뿌리가 약한 세력은 다른 문화를 파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당시 큰 제국을 이룬 바벨론은 갑바도기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흠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하였다.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흠어졌지만, 이는 나중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기반이 되었다(사도행전 2장). 갑바도기아와 바벨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쓰임 받았다. 갑바도기아와 바벨론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며, 페르시아의 구축적 역할을 기다리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

갑바도기아는 다시 새롭게 부상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기원전 550년경 키루스 대왕 (고레스 왕)은 메디아 왕국과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며 아케메네스 제국을 세웠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왕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칙령을 내렸다(에스라 1:1-4). 이 시기에 갑바도기아는 리디아 왕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리디아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 간주되었다. 갑바도기아는 소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교차로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 시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일부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 특히 갑바도기아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빌론에서 생산된 직물, 금속 제품, 곡물 등이 갑바도기아로 수출되었으며, 갑바도기아는 구리, 철, 말 등

자원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갑바도기아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바벨론 제국 시기에 사용된 아카드어와 아람어는 갑바도기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페르시아 제국 시기에 아람어가 행정 언어로 사용되며, 바벨론과 갑바도기아 간의 언어적 연결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언어적 유산은 이후 기독교 시대에도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아람어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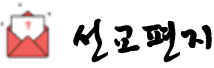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삼았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귀환의 길을 열어 주었다. 갑바도기아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신앙을 유지했던 곳 중 하나였다. 갑바도기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 기초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 목축업, 광업(특히 철과 구리)이 발달하였고 페르시아 군사와 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였고 무역로의 확장은 갑바도기아를 국제적인 교역 중심지로 만들었다. 갑바도기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 전략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제국의 동쪽(중앙아시아)과 서쪽(그리스, 소아시아)을 연결하는 방어 요충지로 사용되었다. 갑바도기아 출신 병사들은 페르시아 군대에 편입되었으며, 특히 기병으로 활약했다. 페르시아의 사트라프 시스템은 갑바도기아에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도입하였다. 갑바도기아는 페르시아의 20개 사트라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된 것이다. 총독은 지역의 세금 징수, 치안 유지, 군사적 책임을 맡았다. 이는 이후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행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페르시아가 구축한 왕의 길 (Royal Road)은 갑바도기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하며 무역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왕의길은 페르시아의 수사(Susa)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소아시아를 거쳐 에게해 연안으로 이어졌다. 갑바도기아 지역은 이 길의 중요한 중간 지점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정복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제도를 도입하는 융합적 통치 방식을 사용하였다. 에스라서에는 다리우스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느헤미야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갑바도기아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불(화염)을 신성시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전통은 갑바도기아 지역의

종교적 관습에 영향을 주었고, 후대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페르시아 건축과 예술 양식은 갑바도기아의 도시와 유적에서 발견된다. 궁전, 성벽, 도시 설계 등에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난다. 페르시아의 갑바도기아 지배는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끝났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남긴 유산은 이후 헬레니즘,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시기가 지나도 이어졌다.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으로 힘을 얻은 강력한 헬레니즘은 갑바도기아를 포함한 아나톨리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 나누어진 셀레우코스 제국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마케도니아식 행정 체계를 받아들이며 기존의 페르시아적 요소와 융합되었다. 기원전 3세기에 갑바도기아는 셀레우코스 제국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왕국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계속 받아 그리스적인 요소가 정치와 문화에 스며들었다.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로 자리잡았으며 갑바도기아에서도 상류층과 행정 관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이후 기독교 전파 시기에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됨에 따라 헬라어의 사용은 갑바도기아에서 기독교의 확산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헬레니즘 문화는 갑바도기아에 철학과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여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등의 사상이 전파되었고, 이는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헬레니즘은 종교, 예술, 건축등 다양한 방면에서 갑바도기아에 영향을 끼쳤다. 갑바도기아의 기존 신화 체계인 자연신 숭배와 그리스 신화가 융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예술과 건축에도 영향을 주어 바위에 새겨진 초기 기독교 교회와 성화 (프레스코)는 헬레니즘 예술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헬레니즘 예술의 특징은 사실적 묘사로 인간의 감정과 동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공간과 대칭성을 보여주며 조화를 중시하고, 상징주의적으로 철학적, 종교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에 나타나지만 갑바도기아 퀘레메의 암흑교회에서 나타난 성화의 대칭성구조와 상징성은 헬레니즘의 영향이 로마시대를 맞을 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r.yongcho@gmail.com



스페인

▶ 기도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1일, 선교사로 파송받아 코스타리카의 언어 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 희진이는 여섯 살 반이었고, 한나는 한 살 반이었습니다. 1996년, 언어 학교를 마친 후 멕시코 후아레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SEED USA 본부에서 본국 사역(home assignment)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부터는 스페인의 세비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

고, 사역에 동역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바톤을 넘기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여 각자의 직장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진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고, 한나와 존은 오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단순한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 초점도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기는 것'으로 옮겨가면서, 젊은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표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여정에 동참하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행 가방을 싸거나 여정준비에 꽤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여정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 동참 하시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 2024년 스페인 교회 개척 이니셔티브 팀과 전도사역으

로 새롭게 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2. 2024년 세비아 신학대학원과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ADL (Academia de Liderazgo - 리더십 아카데미)와 설교 시리즈 강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올 가을 개설 계획인 세비아 신학대학원과 선교/복음 전도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SCPI (스페인 교회 개척 이니셔티브)와 '가정 교회' 모델을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직장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5. 하나님과 함께 루리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익상 / 문희경 선교사



매일가정에배

월 옷사의 죽음 (삼하 6:1-11) 찬 177장

다윗의 통일왕국은 법계를 가져옴으로 신정국가의 안정성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난 옷사의 죽음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땅에 떨어지는 법계를 막는 경거망동한 일로 즉사한 옷사로 인해 다윗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제사 규례를 배운 옷사는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상징인 성전, 성막, 그리고 법계

화 예배의 축제(삼하6:12-23) 찬 361장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삼하6:21)란 말은 예배의 독특성을 설명합니다. 법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본 다윗이 즐거워 춤을 춘 것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조롱받을 정도로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만 미갈에게 징계가 따른 것을 보면(23) 다윗의 행동이 주께 열납되었습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에 즐거움의 요소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경배와 거기에 따른 성

수 다윗이 구한 복 (삼하7:1-29) 찬28장

본문에 보면(27) 다윗 신앙은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백향목 궁정에 있는 자신과 장막에 있는 법계를 비교할 때 성전 건축할 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은혜로 임할 영원한 복을 구한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목 다윗의 목표 (삼하8:1-18) 찬 447장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삶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첫째, 자기 일에 성실한 삶입니다. 다윗이 그 나라를 평정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외적으로 물려오는 원수들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나 내가 머무는 때는 모두 나의 승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분이 나의

금 하나님나라의 의 (삼하9:1-13) 찬265장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는 다윗의 노력이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첫째, 그 의는 공훈과 자비로 나타났습니다. 므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배려는 하나님나라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공훈과 공의가 서로 입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원수의 손자, 절뚝발이를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공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초청 소리를 듣고 마음 문만 열면 내게 들어와 큰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계3:20)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

토 다윗의 방법 (삼하10:1-19) 찬219장

원수의 교묘한 난관에 처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첫째, 원수의 계계에 휘말리지 않았 습니다. 친선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불기를 들어내 보낸 처사는 일종의 전쟁선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치로 응답하는 암몬의 악한 행동은 다윗으로 더욱 더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했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향해 선을 베풀 때 좋은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까닭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에 대한 그런 태도가 이 일을 가져왔다면 성경, 성령, 복음, 그리고 예배에 관한 그릇된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둘째, 오벤 에돔 집에 임한 복은 옷사에게 임한 화와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일의 기초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먼저 마음이 영열로 뜨거워지고 거기에 맞는 은혜가 따릅니다.

안의 구원을 생각한 것입니다. 한 가문과 한 민족의 복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근원으로서의 복을 구한 것입니다. (창12:3) 알고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풍성함을 맞본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부어진 것을 밝힙니다.(엡1:3) 동일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나라 평정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웠습니다.(마6:33) 원수를 정복한 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도록 의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후 공의를 세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 나 자신부터 이 길을 따라야 합니다.(마6:33)

목상으로 그 인자와 진실을 즐기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다윗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적 복을 누림보다 자기 권속이 하나님의 공과 의를 행하는데 있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언제나 그 나라의 공과 의를 세우는 데 심혈을 쏟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셨고 그의 말씀이 나의 양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마4:4, 신8:3)

없는 핏박이 돌아올 때에도 의의 노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 의를 세우기 위해 정당방위로 그들을 멸절시킴으로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자가 원수의 이유 없는 공격앞에도 의를 따르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의의 길을 벗어난 안됩니다. 이 일에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70)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 신약성경의 세계적인 석학 이자 초기 기독교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레리 허타도(Larry W. Hurtado, 1943-2019) 교수가 쓴 책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보면 서기 40년경에 기독교인이 1000명 가량 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서기 100년에는 7000에서 일만명 가량되었고 서기 200년경에는 이십만 명 가량, 그리고 서기 300년에는 500-600 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기독교리 집단 혹은 공동체들이 존재했던 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서기 100년경에는 100여 곳이 있었고 서기 200 년경에는 200- 400여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작가 터툴리안(Tertullian, 160-240)이 쓴 책 “To Scorpula”라는 책에 보면 삼 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모든 도시에서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필자는 이 통계들은 믿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잘 알듯이 AD 67년 이후 313년 밀란 칙령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 가까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혹독한 핍박은 하늘을 찌르듯 정말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나의 예로 3세기 초, 데시우스 황제(Decius, 201-251)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리벨리우스”라는 패를 주게 하여 만약 그 패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조건 처형을 시키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상류층 사이에 기독교를 연구한 비평가들은 조롱과 비판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한편, 2세기 초 로마의 작가 수에토니우스(Gaius Suetonius Tranquillus, 69-130)는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 표현하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단적으로 보이며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는 위의 통계를 보듯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세력은 점차 증가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먼저 일 세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따르는 펜이 아닌 제자로 변화되었고, 단순히 행동이 아닌 정체성이 바뀐 참 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핵심이 기초가 되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며 복음을 향한 무한 질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 복음 정신에서 고백 되는

하나의 표현을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유추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결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6-18)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권고 중 하나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게 될 큰 보상에 절대 비교될 수 없다는 피눈물 나는 호소로 필자에게는 비추어 집니다. 그들이 이런 소망을 확고히 붙들고 있었기에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복음의 신앙고백이 확고해지며 기독교 인구 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고후 4:16-18)을 가지고 한국의 진선미 작곡가가 모태 형태, 즉 텍스트 변화에 음악의 변화 형식으로 두 개의 튜를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곡을 만들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Z-u9pZKrg>

처음 16절의 중심 내용인 “비록 우리의 결사람은 날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대조법의 원리를 짚은 리듬으로 펼쳐가며 여성과 남성이 교차하면서 가사의 중요성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어 17절 18절을 가지고 새로운 튜를 통해 표현합니다. 조성은 변화 없이 그대로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전개합니다. 하지만 중 심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중심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클라이막스를 이루며 종결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시련과 환란을 통한 역설의 축복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보며 생각되어야 할 사실은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맹목적 입장을 벗어나 그러한 역경 뒤에 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신앙 안목이었고 초기 기독교를 세워가는 리더자들과 당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의 닻(앵커, Anchor)이었습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프토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앙 에세이

영적 창조적 소수자를 찾습니다

류용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인류 문명의 발달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책으로,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받아들이진 문명발전의 통념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명이 발전하려면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의 배경을 말할 때 공통점이 좋은 환경 여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갠지스강의 인도 문명, 티그리스 유 프라테스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의 황하 문명입니다. 모두 강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했고 농경시대에 물 공급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토인비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 연구를 발표합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데 반드시 도전이라는 장애물이 있었고 그에 대해 응전하여 극복함으로써 문명발전을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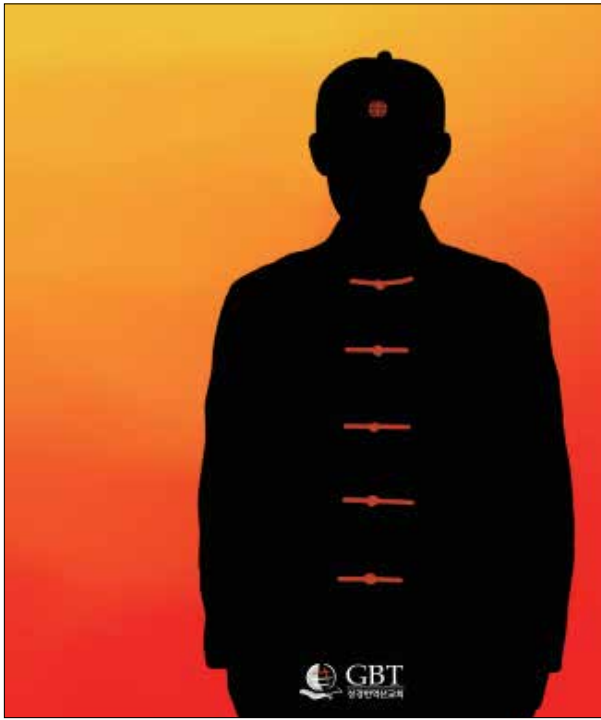
왔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역사 발전을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으로, 그리고 응전하여 역사발전을 주도한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라고 불렀습니다. 토인비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좋지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이 넘치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었고, 응전을 위해 범람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다 보니 천문학과 기하학이 발달해 왔고, 그것이 인류 문명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중국 문명의 젓 줄기인 황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하는 그 이름처럼 사시사철 흙탕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대충은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지만, 어둠을 뚫고 돌파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

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마다 시대의 등불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12제자들은 유대교 종교를 뚫고 나왔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 당하는 로마의 칼날을 뚫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지중해의 영적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중세의 어둠을 뚫고 진리를 선포한 마르틴 루터 한 사람, 그로 인해 종교개혁의 불길에 일어났고, 진젠돌프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마침내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인 선교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더 무서운 도전이 있다면 바로 영적 팬데믹 현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이 무너지는 세상,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떠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중주국이라는 영국은 교회를 다니는 비율보다 이슬람 회중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개신교의 아버지 존 칼빈의 숨결이 녹아있는 프랑스는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 미만이고 무슬림은 벌써 10%를 넘었습니다. 영적 위기를 맞이한 오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응전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역사의 도전 앞에 영적으로 응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갈 것인가?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비상을 꿈꾸게 하는 사람, 영적 창조적 소수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preachchrist@kcpc.org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진 종족

▲ 인구
약 46,500,000명

▲ 종교
무교 48.5%, 민속 종교 31%, 불교 11%, 복음화를 9.5%

▲ 복음매체
성경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진어를 만다린의 서북 방언으로 여겼으나 이제 많은 학자가 별개의 언어로 여긴다. 진나라의 배경이고 공산혁명이 시작된 산시성에 주로 산다. 약 12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진 종족이 많이 사는 허베이와 산시성에 신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 기도제목
1.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인 만큼 구별되는 언어로써 조사가 속히 이뤄지고 진어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2.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웁매놓고 놀던 허리띠”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편한 관계를 웁매어놓고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관계는 없었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내 저

를 제가 어린 시절에 허리띠를 웁매어었다가 경험했던 부끄러운 기억으로 이끌어옵니다. 철이 없던 어린 시절, 추운 겨울이 오면 저의 어머니가 정성 드려 만들어서 입혀주는 솜바지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드려 만들어주신 솜바지를 입을 때 그 솜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금의 현대가 아닌 허리띠로 솜바지를 허리에 붙잡아매어 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로 솜바지를 허리에 매면, 어린 나이에 손힘이 없어 잘 매어지지 않아 곧 풀어져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솜바지가 벗어져 밑에까지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무들과 어울려 놀 때면 아예 허리띠를 힘

주어 웁매어 놓고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리띠를 웁매어고 놀다가 오줌을 누라는 사인이 오면 너무 노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을 도무지 참을 수 없게 되어 달려가 오줌을 누우려고 웁매어 맨 허리띠를 풀려고 하면 웁매어 맨 허리띠가 속히 풀리지 않아 오줌을 지리거나 아니면 오줌을 참을 수 없어 솜바지를 흠뻑 오줌으로 적시곤 했습니다. 낭패도 그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오줌으로 폭 젖은 솜바지를 입은 채로 계속 놀다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꾸중을 들곤 했습니다. 이 아침 눈을 뜨는 제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를 웁매어 묶어놓고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관계는 없나?"라는 생각에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오버랩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오버랩이 되어 다가온 기억을 끄집어내어 생각하며 빙글이 웃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나이를 생각하며 제 자신이 아직까지도 웁매어놓고 풀지 못하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살펴서 어서 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부터 잘 살펴보면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영양예배: 오전 02: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문과: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kf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516)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718) 347-4604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6:00(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영양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 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전교인복합선교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수요성경예배: 오후 8:30 청년예배 오후 3:4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장영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845) 35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í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창당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L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찬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신앙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즈웨버)

손문식 전도사
(은혜한인교회)



이번 세계 한인 기독교인문학 협회 주체 신앙도서로 ‘어쩌다 거룩하게’ 책을 선정해서 읽게 되었다. 총 7편의 도서들의 제목 중 유달리 나디아 목사님의 책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어쩌다’는 단어가 약간 어색하게 조합된 것 같은 느낌과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제목에서 저자는 과연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떤 교훈을 시사하게 될지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나디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이름 역시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 또한 처음에는 어색한 조합처럼 보였다. 그러다 책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제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에 늘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동시에 영적 싸움에서 쓰러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게 되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이들로 ‘어쩌다’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보겠다.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 교회는 죄인과 성인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공동체임을 작가는 이야기한다. 나디아牧사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과거 죄인이었던 이들도, 현재 죄가운데 방황하는 이들도, 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다.

나디아 목사의 프로필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 그녀의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나 알콜과 마약에 중독되어 방황과 타락의 길을 걷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회복 되어지면서 루터교 목사로 서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그러한 젊은 시절의 방황과 회복은 목회사역에 있어서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

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초반부에 ‘성인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만성적 주일 그 과정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교인들과 친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적은 수의 교인들이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녀의 사역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그녀의 사역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

래리라는 교인이 죽게 되었을 때는 친구 케이틀린에게 마치 고해 성사라도 할 만큼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했던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교인 한 사람에 대한 공이 그렇게까지 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디아 목사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이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께 자신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 고백한다.

2012년 뉴올리언스에서 성인 3만 5천 명 모이는 루터교 전국 청소년집회에 집회에 초청 강사로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처음에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지만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참석하게 되었다. 집회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규모였지만 모든 청중은 나디아 목사의 메시지에 커다란 공감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디아 목사 자신을 쓰셨다는 것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강한 울림으로 전달되었던 것이다.

5장에서 ‘당신은 복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그녀의 표현은 브루스 주교를 만나서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주교에게 복

사라는 신분으로 위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진심으로 그의 아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중보기도해 주면서 아픔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 아무도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주교 역시 자신의 슬픔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저서에서 성경 말씀을 진솔하게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실천하고자 힘쓰는 목회자로 보인다. 대림절에 대한 그녀의 시각과 후거에 대한 견해는 어떤 면에서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견해와 해석을 통해 나를 건설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동성애자인 짐과 스튜어트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설교에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마리아에 대해서도 루터교에서는 천주교와 달리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보는 반면 나디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여 봄으로 어느 정도 마리아를 보는 입장이 긍정적이다.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그녀의 견해도 남다르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10일 남겨두고 일어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건은 결코 크리스마스를 캐롤 송으로 흥겹고 상업적인 절기로만 바라보지 않고 해롯왕 당시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했던 일을 같이 상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소외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더불어 생각하는 절기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26명이 살해된 가운데 총격범 애덤 랜자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위로의 종이 울리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인물임을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디아 목사의 진솔한 자신의 간증 또한 독자인 나에게

적지 않은 감동이 되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단지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예배사이에 공동의회에서 자신에게 화를 돌은 교인을 강단에서 지적하지 않고 온순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참석한 어느 산모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힘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기도해 주었을 때 회복을 경험하고,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안았을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이 청년인 빌리가 자살했을 때 그를 위한 장례 예배 의뢰를 받았을 때도 나디아 목사는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문객들이 자신이 교인들처럼 느껴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집례 부탁을 수락한다. 믿지 않는 조문객과 가족들 모두가 분명 냉소적인 반응으로 장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녀는 그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받아 드렸다.

하반신이 마비된 에이미와 그녀의 절친 바비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깨달음과 귀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아렸을 때부터 불구로 지낸 에이미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바비는 서로 다른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누구보다 더 친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들로 소개하고 있다. 에이미는 비록 육체적으로 부자유스럽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바비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감싸주는 벗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에이미가 죽게 되자 바비는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그녀의 장례식에서 짧은 추도사를 통해 심금을 울리는 감사의 글을 읽게 된다. 그동안 바비가 에이미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상처 속에서 늘 가려진 어색한 가진 그에게 발랄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우정으로 품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스토리를 접하면서 저자는 자신도 과거 자가면역 질환으로 눈이 튀어나와 보기 흉한 모습속에서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내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간증한다. 그리고 바비가 건네 준 수제 가방을 선물로 받으면서 자신을 참으로 본 사람이 바비였음을 고마워하고 있다. 손수 만들어준 가방,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막달라 마리아 그림, 나디아 목사는 그 그림이 자신의 팔에 새긴 문신과 같은 것을 알고 감동에 젖게 된다.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 받던 시절에 팔에 새긴 문신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책의 결말 부분에는 세속 목요일과 죄 용서, 성금요일, 부활 성야의 여러 장면들을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을 드라마처럼 엮어내 듯 연이어 적어 두었다. 성금요일 예배 후에는 십자가 상을 가지고 세 아이를 총으로 쏘고 자살한 마이클 페레스의 집 거리로 가서 폭력속에 스러져간 영혼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외롭게 죽음을 선택한 불쌍한 마이클을 기억하며 그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다시금 떠올리는 예식을 가졌다.

부활 성야의 여섯 장면은 각 장면마다 특색 있는 사물과 사건들을 접목시켰다. ‘죽어내린 촛농,’ ‘꿀벌, 하나님의 종,’ ‘마른 뼈,’ 주황색 운동화를 신은 ‘곰팡이가 핀 할렐루야,’ ‘비’ 등이다. 부활절 후에는 성찬식을 갖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부활 성야가 끝나는 날에는 댄스파티를 열고 해방과 기쁨, 부활의 춤을 추었다. 나디아 목사의 이러한 사역은 기존교회에서 무미건조하게 지나칠 수 있는 절기를 한층 생동감 있고 변화를 주어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직감적이고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된 듯 싶다.

호주 강연과 결혼 주례를 약

속한 날씨가 겹치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나디아 목사에게 최악의 날이기도 했다. 동시에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겨우 결혼 주례를 부탁한 트레이시와 제프에게서 용서를 받고 해방되게 되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은혜는 짜릿하게 아프다’라고 그 힘들었던 순간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호주강연에서는 참석한 모두에게 제프와 트레이시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두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죄책감이 아니라 고마워서.’

결말의 장에서는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해 11월에는 성인 과정을 만들지 않는다고 운을 뚫는다. 그리고 과거 그 전통을 정체불명의 전통이라고 받아넘긴다. 그러면서 팔 복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복을 받는 모두는 ‘모든 죄인과 성인’이 함께 하는 교인들이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

‘어쩌다 거룩하게’ 작품을 읽으면서 나디아 목사의 진솔하고 가슴 따뜻한 면모를 발견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열정을 불태우는 투지도 강렬했음을 읽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내 자신은 유년시절 그다지 커다란 방랑의 시간과 탈선은 없었지만, 불신 가정에서 자라 믿을의 첫 세대가 되다 보니 열정이 그다지 강하지도 못하고 영적 훈련의 기회도 많지 못했다.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영적 욕심이 있다면 함께 하던 교인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 강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사람이 식어가고 열정도 식어가는 이 세대에 나디아 볼즈웨버의 열정적인 삶과 사역은 신선하고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살고, 한 사람을 사랑해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2 Samuel 23:13-17
(2) NT Exegesis Text : 1 Thessalonians 4:13-18
(3) Thesis Topic : "From a reformed perspective, present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and nurture of the Endemic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 church."
(4) Sermon Text: (Choose One) Q.T- Leviticus 16:1-10 "The Goat Sent Away into the wilderness to Azazel"
N.T- John 12:27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⑥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⑥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⑥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⑥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⑥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David Chu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29, 2025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29, 2025.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7, 2025).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Dates : May 26(Mon)~27(Tue), 2025
- Place :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5,26) through Rev. David Chun
-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Chun
Address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Cell : (856) 359-5345 E-mail : djchun5882@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